청소년상담문제보고서 56
제29회 특수상담사례연구 발표회

청소년들의 일상을 점령하는 스마트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제29회 특수상담사례연구발표회

‘청소년들의 일상을 점령하는 스마트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일시 : 2012년 10월 25일(목) 14:00～18:00

○장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6층 강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들의 일상을 점령하는 스마트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ㅡ 청소년상담문제보고서 56

인　　쇄 : 2012년　10월
발　　행 : 2012년　10월

발 행 인 : 구 본 용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24)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131 / F. (02)2250-301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서보미디어 (02) 2253-7800

비매품

ISBN 978-89-8234-505-0 (94330)
ISBN 978-89-8234-001-7 (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식순

○ 일시 : 2012. 10. 25(목) 14:00~18:00

○ 장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층 강당

○ 참석대상 :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부모, 교사 등

사회 : 김도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실 실장)

순서	발표자
○ **접수**	
○ **개회사**	**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 **발표 1** 청소년과 스마트폰 – 스마트폰 과몰입의 이유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2** – 스마트폰 사용 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 스마트폰 관련 상담사례 동향 분석	**이영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
○ **토론 1** – 학교장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대책	**조영선** 경인고등학교 교사
○ **토론 2** – 상담장면에서의 스마트폰 문제관련 상담개입	**배주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
○ **토론 3** –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스마트폰 이야기	**이상훈** 안법고등학교 학생
○ **종합토론 및 폐회**	

목 차

발표 1

- 청소년과 스마트폰 ····· 1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 스마트폰 사용 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 17
- 스마트폰 관련 상담사례 동향 분석 ····· 40
  - 이영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

토론 1

- 학교장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대책
  “휴대전화를 둘러싼 이야기” ····· 63
  - 조영선(경인고등학교 교사)

토론 2

- 상담장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문제 ····· 75
  - 배주미(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

토론 3

-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스마트폰 이야기 ····· 83
  - 이상훈(안법고등학교 1학년)

발표 1

청소년과 스마트폰

장 근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1

청소년과 스마트폰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

이 질문은 매우 간단하게 답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답할 수도 있다. 간단한 답은 스마트폰이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답변은 단순히 청소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늘 공동체를 이루어서 문화를 만들고 서로 의존함으로써 진화해왔다. 인류의 선조 중에도 고독한 늑대처럼 행동하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고독하게 죽어갔다. 지금의 우리는 남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 때 어떻게든 끼어들어서 같이 수다를 나눔으로써 연대감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남았던 조상의 후손들이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바로 그 사회성이 생존의 본능으로 남겨져 있다. 신문, 방송, 전신, 유선전화, 무선전화 그리고 인터넷까지 이 모든 통신 플랫폼들은 그 자체의 기능성 보다도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에 소구하기 때문에 늘 성공해왔다. 특히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인터넷과 무선전화의 기능을 융합시킨 기기이므로 더욱 그렇다. 물론 적절한 사용자 환경과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스마트폰의 잠재력은 그저 잠재력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의 매력은 현실화되었고 끝없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현재까지 스마트폰은 희귀하다. 아래 이용실태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현재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적다. 가장 이용율이 높은 고등학교에서도 48% 만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40%, 초등학교에서는 20% 정도다. 이렇게 희귀한 아이템을 소유한다는 것은 또래들 사이에서 어떤 지위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즉, 스마트폰이 희귀하다는 것 만으로도 선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소유가 아직까지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의미도 된다. 또래집단 내에서 나를 제외한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은 집단과의 동조를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절반이 넘는 미 소유자가 존재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아이템은 그런 대상은 아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양식과 적절히 부합한다. 즉시성과 지속성이 그것이다. 우선 스마트폰은 즉시성을 제공한다. 휴대용 기기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너무 분명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짧은 문자메시지의 교환에 적합하는 점이다. 문자메시지를 단순히 정보전달의 도구로 사용하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공감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짧은 메시지의 끊임없는 상호교류가 필요한데 인터넷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가 스마트폰이다.

세 번째,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모바일 장비에 특화된 SNS와의 결합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기술한 스마트폰의 즉시성과 이러한 양방형 소통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스마트폰은 이전에 싸이월드로 대표되던 고정형 커뮤니티가 좀 더 역동적이면서도 휘발성과 파괴력을 동시에 가진 이동형 커뮤니티로 발전하게 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 언제나 기존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기성세대 보다는 신세대인 청소년이 유리하다. 즉, 스마트폰은 새로운 매체로의 통로가 되며 새로운 매체는 신세대에게 더 적절하므로 스마트폰이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

여기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2011년에 실시한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의 결과 중에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을 발

체하여 소개하고자 한다(박수억 외, 2011). 이 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되어온『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의 2011년도 조사에 해당한다. 기본 문항은 전년도와의 비교를 위해 2010년도 조사문항과 일치하지만 2011년 9월에 국가통계승인[국가승인(협의)번호: 제15414호]을 획득하기 위해 일부 다른 조사와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변형하였다. 앞으로는 조사주기를 2년으로 확대하면서, 조사 과정이나 내용의 충실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본 조사의 결과는 여성가족부(www.mogef.go.kr)를 통해 공표된 바 있다.

2011년도 조사는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는 10월 4주 ~ 11월 2주 사이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십대 남녀 청소년 6,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전국에 소재한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표집단위는 개개인의 학생이 아니라 학급이었다. 조사시점을 고려하면 본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까지 보고된 조사결과 중에서 가장 최근 자료 중 하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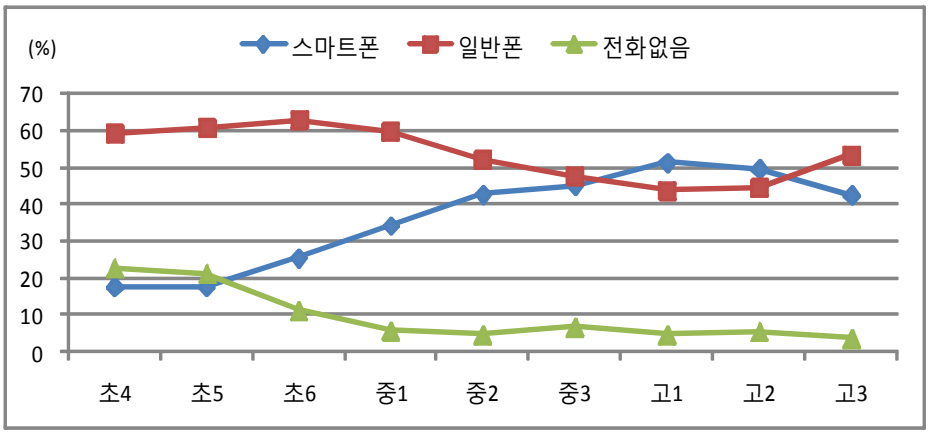
1)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36.2%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휴대전화의 소유 비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소유 비율도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5명 가운데 1명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약 95%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등학생의 절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1〉 휴대전화 소유 여부 (%)

		스마트폰	일반휴대전화	휴대전화 없음
전체		36.2	53.9	9.9
성별	남	34.3	52.4	13.2
	여	38.3	55.5	6.3
학교급	초	20.4	61.1	18.5
	중	40.9	53.3	5.9
	고	48.0	47.2	4.8

휴대폰의 소유 비율을 학년별로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학년이 증가하면서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인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학년별 휴대전화 소유 비율

<표 2>는 휴대전화의 월평균 이용 요금을 보여준다. 이용 요금이 4만원 미만인 비율은 53.7%였으며, 6만원 이상은 7.6%, 8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고 있는 비율도 11.3%로 높았다. 이용 요금에서 남녀가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6만원 이상의 금액을 월평균 이용 요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비율에서 초등학생은 7.4%였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20%와 27.9%로 높았다. 특히 고등학생들 가운데 17.5%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한 달에 8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휴대전화 월평균 이용 요금 (%)

		2만원 미만	2~4만원미만	4~6만원미만	6~8만원미만	8만원이상	모름
전체		25.6	28.1	16.7	7.6	11.3	10.7
성별	남	25.6	28.6	16.5	7.4	10.9	11.1
	여	25.6	27.6	17.0	7.8	11.8	10.3
학교급	초	39.8	22.2	9.2	3.5	3.9	21.3
	중	20.7	32.3	18.6	8.3	11.7	8.3
	고	17.6	29.3	21.5	10.4	17.5	3.7

<표 3>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기능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용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도 각각 9.2%와 6.5%였다. 비록 작은 비율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를 통화의 수단이 아닌 여가를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한편,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하는 비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소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SNS의 사용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휴대전화의 이용 행태에서 남녀간 차이는 두드러진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높으며, 전화통화를 위해 사용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다소 높았다. 또한 남학생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채팅이나 다른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은 문자보다는 전화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휴대전화를 문자교환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게임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고등학생은 그 비율이 낮았다. 대신 고등학생은 음악을 듣거나 채팅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휴대전화의 이용 행태(주로 사용하는 기능) (%)

		전화통화	문자	음악 듣기	사진 동영상	게임	SNS	TV 시청	채팅	인터넷	기타
전체		23.7	40.4	6.5	2.8	9.2	0.5	1.1	5.4	3.6	7.0
성별	남	26.1	35.1	6.5	1.7	15.4	0.4	1.2	4.3	3.9	5.3
	여	21.2	45.6	6.5	3.8	3.1	0.6	0.9	6.5	3.3	8.3
학교급	초	39.1	30.4	3.3	3.6	12.1	0.2	1.4	1.8	2.1	5.9
	중	19.3	41.9	6.9	2.3	12.3	0.3	1.1	5.0	3.9	7.0
	고	14.2	47.8	8.9	2.5	3.9	0.9	0.7	9.0	4.6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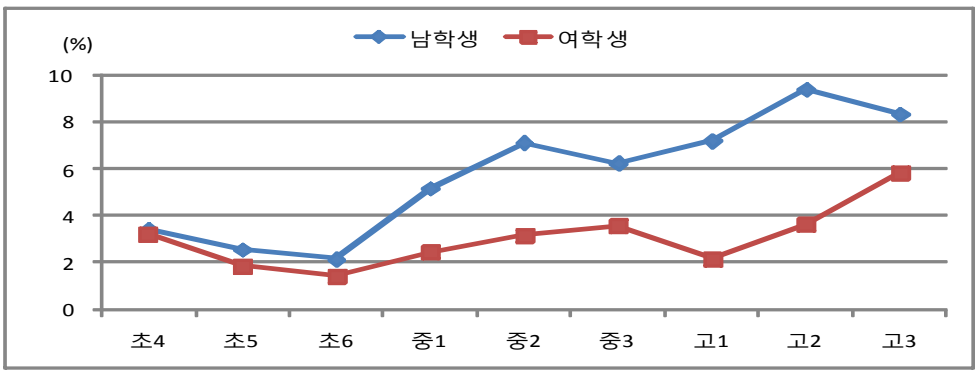
<표 4>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인용 컨텐츠를 접촉한 경험 및 빈도를 보여준다. 조사대상 가운데 4.5%는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접촉 경험을 가진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 빈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전체의 2%는 일 년에 4번 이상 접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 휴대전화를 통한 성인용 컨텐츠 접촉 경험 및 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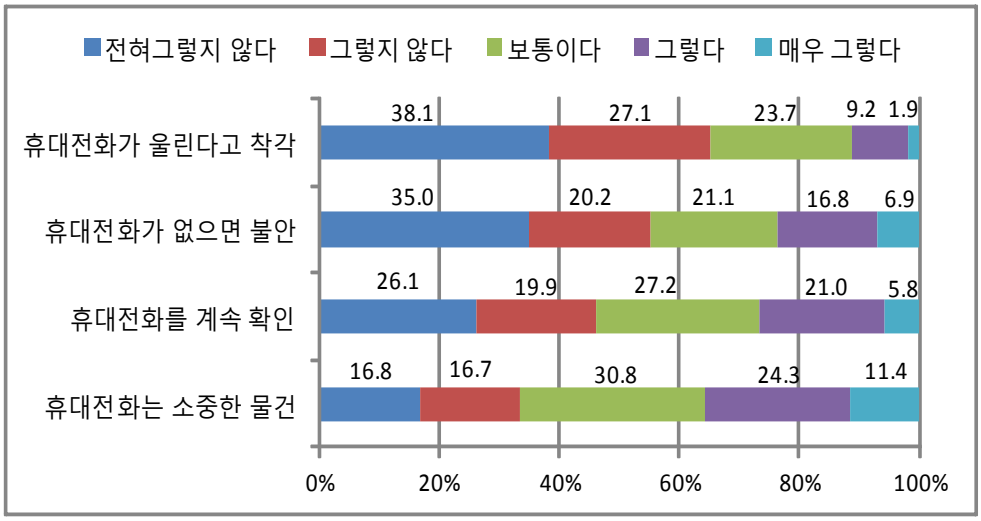
		접촉 경험		접촉 빈도			
		예	아니오	가끔 (1~3번)	보통 (4~6번)	자주 (7~9번)	매우 자주 (10~12번이상)
전체		4.5	95.5	52.7	23.0	7.4	16.8
성별	남	5.9	94.1	49.7	23.7	7.7	18.9
	여	3.1	96.9	58.6	21.8	6.9	12.6
학교급	초	2.4	97.6	53.7	29.3	4.9	12.2
	중	4.7	95.3	49.4	29.2	10.1	11.2
	고	6.1	93.9	54.8	16.7	6.3	22.2

성인물의 경험 여부와 접촉 빈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2.4%, 중학생의 4.7%로, 고등학생의 6.1%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인용 컨텐츠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는 학년에 따른 성인물 접촉 경험에서 남녀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중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인물을 접촉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접촉 비율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학년에 따른 성인용 컨텐츠 접촉 경험의 남녀 차이

[그림 3]은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 정도를 보여준다. 설문조사는 4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각 질문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을 한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 정도가 높다고 간주하였다. 먼저, 11.1%는 휴대전화가 울린다고 자주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3.7%는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답했다.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확인한다는 응답은 26.8%였으며, 조사대상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휴대전화를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3]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 정도(문항별)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 정도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5>는 집착 정도를 단일변수[1]로 처리하여 집단별로 비교한 값을 보여준다. 우선, 전체 학생의 9.5%는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 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2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이 집착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집착 수준을 보여주었다.

1) 단일변수의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네 개의 문항 각각에 대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경우를 '1', 기타 응답의 경우를 '0' 으로 처리하였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값들을 모두 합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평균값이 4 이상이면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 정도가 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5〉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 정도(전체) (%)

		집착 정도가 보통 이하	집착 정도가 강함
전체		90.5	9.5
성별	남	93.8	6.2
	여	87.3	12.7
학교급	초	93.7	6.3
	중	88.3	11.7
	고	89.9	10.1

2)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이용실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이용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소유 비율이 학년이 증가하면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SNS 이용 행태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SNS를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트위터' 나 '페이스북' 에 한정하지 않는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SNS는 '싸이월드' 와 같은 개인 홈피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표 6>은 SNS 계정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유하고 있다면 친구(팔로워)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약 59.7%의 학생은 SNS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정은 가지고 있으나 친구가 한 명도 없는 비율은 4.8%이고, 28.9%는 50명 미만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명이상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비율도 13.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SNS 계정을 더욱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맺고 있는 친구 수에서도 현저히 높았다.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많았으며, 초등학생들은 주로 50명 미만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중고등학생 30% 이상은 50명에서 200여명에 이르는 SNS상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SNS 계정 소유 여부 및 친구(팔로워) 수 (%)

		SNS 계정 소유		친구(팔로워) 수*					
		예	아니오	없음	25명 미만	25~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미만	200명 이상
전체		59.7	40.3	4.8	16.3	12.6	12.0	9.7	4.0
성별	남	49.1	50.9	4.3	13.5	9.7	9.1	8.8	3.5
	여	71.1	28.9	5.4	19.4	15.8	15.0	10.6	4.5
학교급	초	44.3	55.7	5.1	19.6	10.4	5.0	2.3	1.2
	중	64.9	35.1	5.2	16.4	13.9	14.1	10.7	4.6
	고	70.7	29.3	4.2	12.9	13.7	17.1	16.2	6.4

* 친구(팔로워)수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비율을 의미함

<표 7>은 SNS의 이용 빈도를 보여준다.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10.4%는 실제로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6.9%는 이틀에 한 번 이상을 SNS에 접속하고 있었으며, 28.3%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을 SNS를 통해 사이버 상에서 친구와 소식을 주고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NS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 더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SNS에 접속하는 비율도 30.0%로 남학생의 26.0%보다 다소 높았다.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SNS를 더욱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SNS 이용 빈도 (%)

		전혀 안함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하루에 1-2번	하루에 3번 이상
전체		10.4	24.1	20.4	16.9	16.7	11.6
성별	남	12.4	26.5	18.8	16.3	15.7	10.3
	여	8.9	22.4	21.5	17.3	17.4	12.6
학교급	초	12.7	30.5	17.6	17.2	14.5	7.6
	중	9.7	21.7	19.3	17.2	18.9	13.2
	고	9.5	22.1	23.1	16.4	16.1	12.8

3 스마트폰이 인간관계(가족, 또래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1) 매체 이용의 긍정적인 측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매체 환경은 청소년들의 삶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은 다양한 학습정보를 보다 빠르게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 보조 수단이 되었으며, 스마트폰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과 더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환경은 예전에 동네 공터나 놀이터와 비슷한 또래놀이공간으로 기능한다. 디지털 환경이 사회성을 습득하고 형성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문경숙 · 장근영, 2010). 청소년들은 '페이스북' 이나 '트위터' 등과 같은 SNS를 이용하여 친구들을 만나고,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연륜 있는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만난 또래 집단들로부터 스스럼없이 배우면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연구의 결과(Ito, et al., 2008)는 디지털 매체의 발달이 오늘날 청소년 사회적 관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매체를 이용한 관계형성은 시공간적인 한계를 뛰어 넘음으로써 미래사회에 보다 확장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는 셈이다.

2) 매체 이용의 부정적인 측면

매체의 발달은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잘못된 언어 습관 형성,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일탈 및 문제 행동 유발 등을 들 수 있으며, 많은 연구들은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 잘못된 언어 습관 형성

중학생들의 욕설 사용 실태에 대한 한 연구(손봉희, 2010)에서 매일 2회 이상 욕

설을 한다는 비율은 남녀 각각 67%와 62%였다. 청소년들이 저속어 혹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겠으나, 욕설을 친근감과 동질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또래 문화의 특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조어의 남용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의 문제도 심각하다. 과도하게 축약되거나 국어와 외래어와의 조합으로 이루진 신조어들은 우리말의 본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이 저속어를 사용하고 우리말을 빈번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언어 습관은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댓글 속에서 저속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은 넘쳐나고 있다. 디지털 매체의 발달이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 이유이다.

(2) 게임 과몰입

성인들과 비교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2009)에 따르면, 십대 청소년들의 99.9%가 매달 적어도 한 번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다른 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외국의 사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한 조사(eMarketer, 2011)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96%로 전체 인구의 평균 이용률 7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2010)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와 미국 노동통계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0)의 <American Time Use Survey 2010>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게임 평균 이용 시간은 주중에는 약 51분으로 미국의 청소년들과 비슷하지만(BLS, 2010), 주말 이용시간은 1시간 25분 정도로 15분 정도 더 길었다. 주말 여가시간을 인터넷 검색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은 게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다른 연령층에서는 주로 자료 및 정보 획득,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쇼핑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청소년층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이 주요한 이용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혹은 인터넷 게임의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3) 일탈 및 문제 행동 유발

성인들의 직접적인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또래 문화를 양산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은 청소년들이 성인문화를 여과 없이 흡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성인들의 생활공간과 청소년의 생활공간이 물리적으로 차별화되었던 전통적인 생활맥락이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면서 영역간의 장벽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은 성인들의 범죄에 직접 노출됨과 동시에 성인들의 비행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 가운데 인터넷 이용 중에 불법이거나 유해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83.4%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유해정보를 처음 접한 시기는 '고등학생 때'(22.4%), '대학교 졸업 이후'(17.7%), '중학생 때'(15.2%)의 순이었으며, 유해정보를 접하게 된 경로로는 '웹서핑 중 우연히'(31.8%), '배너광고를 보고'(19.8%), '검색엔진을 통해서'(18.7%) 순이었다(문경숙 · 장근영, 2010). 이러한 디지털 매체가 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적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이었으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그 일탈 양상도 바꾸어 놓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에 디지털 매체이용의 부작용은 왕따나 학교폭력같은 학내 문제를 사이버 공간속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인 사이버 폭력이 '사이버왕따(cyberbullying)'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Kowalski & Limber, 2007).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나, 관련 사례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노컷뉴스 2010년 3월 1일자; 중앙일보 2004년 2월 24일자). 오프라인에서 왕따를 당한 학생을 온라인에서도 왕따를 시키거나, 여러 명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적으로 악플을 다는 행위, 특정인의 메신저를 차단해버리는 행위 등은 청소년에게 심리적인 고립감과 두려움이라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심리적 문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발표 2

스마트폰 사용 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 스마트폰 관련 상담사례 동향 분석

이 영 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

조사 및 연구 : 상담팀 – 이영선, 이현숙, 조은희, 김래선

발표 2

스마트폰 사용 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영선, 이현숙, 조은희, 김래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팀)

I 서 론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되어 스마트폰 없이 살기에는 불편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새롭고 다양한 기능이 개발되어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사용률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폰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능에 정보검색, 교육, 게임, 금융. 음악, 동영상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손안에 컴퓨터라 할 수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속으로 침투하여 2012년 8월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1477만 명, KT 944만 명, LG유플러스 582만 명으로 총 3003만 명이 넘어섰다고 보고되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에서 3000만까지 도달하는데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아이티투데이, 8. 22). 스마트폰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도 누리게 되었지만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으로 무제한 데이터가 보편화 되었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면서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 컴퓨터는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폰은 가지고 다니면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중독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게임, 웹툰, 동영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커뮤니티 기능까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심리적, 신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스마트폰이 손에 없을 경우 중독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벨소리를 자신의 벨소리로 착각하는 증세를 보이고, 화장실을 가거나 목욕을 할 때도 스마트폰을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전화를 확인하는 행동을 경험하게 된다(임애라, 2008).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필요이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가져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또래관계가 중요한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은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다(김은경, 2006).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SNS를 통한 관계는 넓어지는데 반면 주위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과 같은 그룹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집착하게 되어 다른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윤주영 외(2011)는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눈의 피로, 손목과 손가락의 통증, 목과 어깨 결림, 두통 등의 신체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인 통증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1.4%로 인터넷 중독률 10.4%를 이미 추월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작년 5월부터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PC게임과 달리 스마트폰의 게임은 중독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지정을 2년 후로 유예하였다. 하지만 이미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휴대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이미 멈출 수 없는 마법에 걸려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사용 연령대가 더욱 낮아질 것을 예측해 본다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핸드폰의 개념을 넘어서 인터넷이라는 특성과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중독보다 더욱 강력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측해 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 할 청소년을 모집하기 위해 사전에 학교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다음을 연구 대상의 조건으로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의 조건은 ①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청소년 ② 스마트폰 상에서 사이버 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 ③ 스마트폰이 잠시라도 있지 않으면 불안한 청소년 ④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습에 집중이 되지 않는 청소년 ⑤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었다.

모집된 청소년은 모두 23명으로 중학생이 9명, 고등학생이 14명이다. 중학생 집단의 인터뷰는 2012년 9월 14일에 실시하였으며 모두 1학년이였고 성별은 남자가 5명, 여자가 4명이였다. 고등학생 집단의 인터뷰는 2012년 9월 8일과 19일에 실시하였으며 1학년 10명, 2학년은 4명이였으며, 성별은 남자가 8명, 여자가 6명이였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면접하였다. 또한 모든 면접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을 녹음하였고 모든 내용을 축어록으로 풀고 추후 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았다.

〈표 1〉 포커스 그룹 참여자 주요 인적사항

대상자	학년	성별	스마트폰사용시기
1	중학교 1학년	여자	7개월
2		여자	4개월
3		여자	2개월
4		여자	3개월
5		남자	9개월
6		남자	12개월
7		남자	21개월
8		남자	11개월
9		남자	9개월
10	고등학교 2학년	여자	12개월
11	고등학교 1학년	여자	7개월
12		여자	7개월
13		남자	모름
14		남자	24개월
15	고등학교 2학년	남자	30개월
16	고등학교 2학년	남자	7개월
17	고등학교 1학년	남자	24개월
18		남자	24개월
19		여자	24개월
20	고등학교 2학년	여자	30개월
21	고등학교 1학년	여자	26개월
22		남자	14개월
23		남자	12개월

2. 자료수집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학생 2그룹, 고등학생 3그룹으로 총 5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그룹의 인원은 4명 또는 5명이었다. 포커스 그룹 연구에서 그룹 수를 일반적으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로 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도 5그룹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룹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할범주를 사용하였다.

면접시간은 그룹 당 약 9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각 인터뷰에는 연구자 2인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1명은 사회를 맡아 주제에 적합한 내용이 토의되도록 연구목적에 맞는 질문을 제시하면서 토의를 이끌어나갔고, 1명은 동석하여 현장노트를 작성하고 녹음을 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내용은 <표 2>와 같다. 그룹 인터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활기가 있었고 구성원 모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나누었다.

〈표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영 역	질 문
스마트폰 사용과 매력	1. 스마트폰은 나에게 OOO이다. 2.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무엇을 하는가? 3. 스마트폰의 매력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가장 즐겁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변화와 조절	1. 나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여 부모님 혹은 선생님에게 혼나거나,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2. 스마트폰 사용 이전과 이후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그렇다면 내가 스마트폰 사용을 잘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	1. 최근에 카톡 등에서 이루어지는 왕따나 욕설 같은 사이버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 주변의 상황은 어떤가? 2.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리고 어른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까요?
대안활동	1. 평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보통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 2. 만약, 강제로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어디에 두고 가서 사용을 못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나?
스마트폰과 사용에 대한 현재 대응	1. 나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가? 혹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강제로 못하게 하시는 면도 있나? 2.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가? 어떤 것 때문인가? 3. 만약, 효과가 없다면 무엇 때문인가?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예방과 합리적 대응	1.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갈등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스마트폰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3. 나의 친구, 동생, 이성친구가 스마트폰 사용문제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나?

3. 자료분석

Krueger와 Casey(2009)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자료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를 체계적(systematic), 입증 가능한(verifiable), 순차적인(sequential), 계속 이어지는(continuous)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미리 정해진 과정을 따르고(순차적), 모든 과정을 분석팀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고(체계적), 자료에 대해 선택적 지각을 하거나 특정정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해서 다른 분석자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입증 가능한), 집단고안, 참자가 결정, 질문과 분석의 연결, 인터뷰 진행자 역시 분석을 염두하고 명료화하는 등의 전 단계의 연결성을 이루고(순차적) 한 그룹이 끝난 후 다음 그룹이 시작되기 전 분석을 시작해서 다음 그룹진행에 대한 정

보를 구하라(지속적)는 것이다(이규미, 2010, 재인용).

Krueger(1998)가 제안하는 포커스 그룹 연구의 분석방법은 근거이론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을 근간으로 한다. 자료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자료를 부호화한다. 연구자는 자료 속에서 어떤 현상이나 개념이 나타나면 이름을 붙이고 이 명명한 이름이 다시 나타나면 같은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계속한다(개방형 부호화 open coding). 그런 다음 연구자는 비슷하게 명명한 이름들을 조합하고, 자료 속에서 관련된 상황을 재점검한다(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199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첫 번째 그룹의 인터뷰 직후 녹음자료를 전사하였고 첫 번째 원자료는 분석자들에게 미리 보내 의미자료를 각자 추출해 오도록 했다. 연구 분석자는 4명으로 1명의 상담전공 박사, 1명의 임상전공 석사, 2명의 상담전공 석사로 구성되었다. 1차 분석모임에서 분석 편파에 대한 주의와 분석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각자 검토한 의미자료를 상호 검토하여 의미자료를 선택하고 각 자료에 대한 1차 명명화 작업을 하였다. 이후에는 나머지 그룹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자 모두에게 미리 보내어 사전준비과정을 가졌으며 사전 작업해 온 내용을 기초로 4명의 분석자가 함께 의미자료 명명화 작업을 하였고 전체 자료에 대한 영역구분을 하였다. 이 자료를 재검토한 후 분석자들과 재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Ⅲ 연구결과

중 ·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관련 경험

본 연구 결과 나타난 영역, 의미범주, 의미자료 수는 <표 3>과 같다. 총 12개 영역과 49개 의미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나타난 영역으로는 (4)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변화' 로 총 72번의 의미범주가 나타났으며, 여섯 개의 의미범주 중 '부모 및 부모외 가족간의 관계' 가 27번, '건강' 이 13번, '학업' 이 12번 '교사와의 관계' 가 10번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 '스마트폰의 주 사용 용도' 영역은 42번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범주가 20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10) '스마트폰 과다 사용 예방방법' 영역은 41번으로 '개인의 자율적 규제 노력' 범주가 17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기

의 기능,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통제' 범주는 12번으로 나타났다. (3) '스마트폰의 매력' 영역은 28번으로 '정보 습득의 즉시성' 범주가 11번, '기기접근의 용이성' 범주가 9번, '대인관계 상호작용' 범주는 6번으로 나타났다.

(9) '스마트폰 사용을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영역은 26번이 나타났고, '심리 내적인 부정적 변화' 범주는 19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은 (1) '스마트폰에 대한 주관적 인식' 영역으로 23번인데 '친밀한 대상으로서의 의미' 범주는 12번, '즐거움과 호기심의 의미' 범주는 11번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8)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행동' 영역도 23번인데, '다른 매체활동' 범주가 11번으로 나타났다. 한편, (5)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폭력' 영역과 (7) '스마트폰 사용 조절 방해 요인' 영역은 각각 21번인데, (5) 영역은 '카톡에서 다툼 및 왕따' 범주 7번, '스마트폰에서 폭력 경험 없음' 범주가 6번으로 비슷했으며, (7) 영역은 '습관 및 중독' 범주가 14번으로 가장 많았다. (6) '스마트폰 폭력에서의 대응' 영역은 19번으로 '친구들끼리 해결함' 범주가 9번으로 나타났다. (11)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대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것' 영역은 18번인데, '강압적 통제' 범주는 8번, '협의하여 조절' 범주도 7번으로 비슷하였으며, (12)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있는 가까운 주변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영역은 18번인데, '대안활동 함께 하기' 범주가 11번으로 가장 많았다. 각 영역에 포함된 의미와 주요 의미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중 ·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관련 경험 영역 • 의미범주 • 의미자료 수

영 역	의미범주	의자료수	
		A(중)	B(고)
1. 스마트폰에 대한 주관적 인식 (23)	1-1 친밀한 대상으로서의 의미(12)	4	8
	1-2 즐거움과 호기심의 의미(11)	5	6
2. 스마트폰의 주 사용 용도(42)	2-1 사회적 상호작용(20)	4	16
	2-2 흥미와 즐거움 추구(18)	7	11
	2-3 일정관리 및 메모(2)	–	2
	2-4 학습활동 도구(2)	–	2
3. 스마트폰의 매력(28)	3-1 정보 습득의 즉시성(11)	1	10
	3-2 기기접근의 용이성(9)	5	4
	3-3 대인관계 상호작용(6)	2	4
	3-4 사용의 경제성(1)	–	1
	3-5 자기 과시의 도구(1)	1	–

영 역	의미범주	의자료수	
		A(중)	B(고)
4.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변화(72)	4-1 부모 및 부모외 가족 간의 관계(27)	10	17
	4-2 건강(13)	7	6
	4-3 학업(12)	4	8
	4-4 교사와의 관계(10)	3	7
	4-5 친구관계(8)	5	3
	4-6 심리적 변화(2)	–	2
5.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폭력(21)	5-1 카톡에서 다툼 및 왕따(7)	4	3
	5-2 스마트폰에서의 폭력 경험 없음(6)	2	4
	5-3 모르는 사람의 협박과 음란 메시지(5)	1	4
	5-4 카톡에서의 비방(3)	1	2
6. 스마트폰 폭력에서의 대응(19)	6-1 친구들끼리 해결함(9)	2	7
	6-2 신고, 예방 등의 지원(6)	2	4
	6-3 어른과 학교에 알림(4)	2	2
7. 스마트 사용 조절 방해 요인(21)	7-1 습관 및 중독(14)	5	9
	7-2 시간 보내기 도구로 활용(3)	2	1
	7-3 기기요소에 의한 흥미(2)	1	1
	7-4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1)	–	1
	7-5 기기의 대중성(1)	1	–
8.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행동(23)	8-1 다른 매체활동(11)	4	7
	8-2 특별한 대안행동이 없음(6)	1	5
	8-3 취미활동(4)	–	4
	8-4 대인관계(2)	–	2
9. 스마트폰 사용을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26)	9-1 심리 내적인 부정적 변화(19)	4	15
	9-2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3)	–	3
	9-3 관계로부터의 단절감(2)	–	2
	9-4 대체행동을 하게 됨(2)	2	–
10. 스마트폰 과다 사용 예방방법(41)	10-1 개인의 자율적 규제노력(17)	9	8
	10-2 기기의 기능,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통제(12)	–	12
	10-3 부모, 교사의 타율적 규제(7)	–	7
	10-4 다른 관심사 개발(3)	3	–
	10-5 개인의 인식제고 노력(2)	–	2
11.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대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것(18)	11-1 강압적 통제(8)	4	4
	11-2 협의하여 조절(7)	1	6
	11-3 대안 마련(3)	–	3
12.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있는 가까운 주변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18)	12-1 대안활동 함께 하기(11)	5	6
	12-2 충고 및 조언(4)	1	3
	12-3 대안활동 제안(2)	1	1
	12-4 가족의 관심(1)	–	1

• 스마트폰에 대한 주관적 인식

먼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즐거움과 호기심의 의미, 친밀한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중 게임이나 다양한 어플을 사용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용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친밀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어플에 심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혼자 심심할 때 글을 치면 답장이 오기도 하고, 카톡이나 뭐 연락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도 하기도 하니까 스마트폰은 친구이다."
(친밀한 대상으로서의 의미, B1)

"스마트폰은 나에게 밥먹으면서도 계일 자주 하고 제밌는 게임기이다."
(즐거움과 호기심의 의미, A1)

• 스마트폰의 주사용 용도

청소년들의 주사용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 흥미와 즐거움 추구, 일정관리 및 메모, 학습활동 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흥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톡이나 게임, 인터넷하는데 그중에서 카톡을 계일 많이 해요."(사회적 상호작용, A5)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가서 인터넷에 연재하는 만화 같은 거 봐요."
(흥미와 즐거움의 추구, A7)

"아무래도 그냥 다이어리 같은 걸로 썼는데 스마트폰을 쓴 다음에는 오히려 더 편하고 그때그때 바로 적을 수 있으니까 편하고 그리고 펜이 없어도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일정관리 및 메모, B11)

“모르는 단어 같은 것을 찾을 때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컴퓨터로 하나하나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편하니까 그것을 주로 사용하고, MP3나,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파워포인트를 다운로드 받아 넣기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학습활동 도구, B3)

- **스마트폰의 매력**

스마트폰의 매력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정보를 즉시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기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이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중요한 통로로서 활용되는 것을 매력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과 경제적이라는 것을 들었다.

중학생의 경우 기기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원하는 정보를 즉시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그냥 궁금한게 생기면 옛날 같으면 뭐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직접 인터넷에 컴퓨터를 키고 내가 찾아보거나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어디서든 궁금한게 생기면 바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게 젤 좋은거 같아요." (정보 습득의 즉시성, B13)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작아서 사용하기가 편해서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기접근의 용이성, A5)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스토리를 보면서 애들하고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고, 연락 안하던 초등학교 친구들하고도 연락 닿게 되는 경우도 많다.”(대인관계 상호작용, B2)

"문자는 돈을 내야 하는데 카카오톡은 한정된 데이터 안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사용의 경제성, B4)

"최신폰이라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서 좋은거 같아요." (자기 과시의 도구, B6)

-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변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님 및 가족과의 관계에 변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을 계기로 관계가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님과 관계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와의 관계 변화도 가족관계 변화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타났으며, 건강면에서는 시력이 낮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학업성적은 낮아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아져 친구와 멀어진 것을 경험하는 등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갈 때도 가족이랑 대화 안하고 음악만 듣고 있으니까 카톡하고... 가족과의 관계는 말수가 더 적어지고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부모 및 부모 외 가족 간의 관계, A2)

“각종 오락 어플이라던지 이런 거 땜에 밤에 부모님 몰래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불을 끄고 하다보니까 눈이 나빠지는 것이 있구요.”(건강, B13)

“학업적인 면에서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계속 핸드폰 들여다 봐요.”
(학업, B9)

"맨 뒷자리에 앉게 되면은 칠판이 일단 잘 안보이고... 선생님도 잘 안보이시 잖아요?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면 안되지만 많이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케 뒤 친구 등에 숨어서요. 수업시간에 주위에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선생님이랑도 갈등이 생기고." (교사와의 관계, B12)

"육년된 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이유가 그 친구랑 놀아야 하는데 핸드폰방(카카오톡)에서 수다 떨다가 그 친구에게 신경을 못써줘서 헤어지게 되었다." (친구관계, A1)

"카카오톡 같은 거 봐야 되는데 보고 싶은게 있으면 얼른 봐야 되는데 폰이 없으면 대게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요. 막 불안한게 있어요." (심리적 변화, B9)

•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폭력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카카오톡의 그룹채팅이라는 기능을 통해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 학생을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언어 표현 등으로 인해서 말싸움이 되어 다툼이 생기고 이러한 다툼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도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폭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방적으로 잘못된 정보 혹은 사적인 정보를 유포해 비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소한 말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싸우다가가요. 한 명이 애들을 막 모아 가지고 왕따하고 따로 또 다른 채팅방 모아가지고 왕따 시키고 저희들끼리 말하지 말라는데, 이런 말 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요"
(카톡에서 다툼 및 왕따, B7)

"저는 욕설 안 하는 애들이 많아서 욕설하는건 못 봤는데"
(스마트폰에서의 폭력 경험 없음, A9)

"모르는 사람인데 널 죽인다 널 보고 있다 막 그런식의 얘기 있잖아요? 너 지금 어디에서 모하고 있지? 그 장소에 있는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의 협박과 음란 메시지, B11)

"그렇지 않은 애들이 노는애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비방을 한거에요, 근데 그게 사이버수사대에 노는 애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같은 학교 라는걸 알아서 징계받고 그랬었어요"
(카톡에서의 비방, B10)

• 스마트폰 폭력에서의 대응

스마트폰 폭력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적절한 대응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으나, 오히려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어른들이 개입되었을 때, 상황이 더욱 좋아지지 않고 악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경우,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거나, 청소년들 중 누군가가 중재

자로 나서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여, 결국 이 문제가 어른들이 개입되기 보다 또래 관계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스마트폰에서의 폭력도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이므로 구별 없이 엄중하게 법적 처벌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처벌 이전에 스마트폰 폭력에 대한 예방차원의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사소한 말싸움이 있을 때요 나서가지고 화해를 막 도모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해결함, B7)

"현재 폭력에 대처하는 대로 뭐 학교에서 조치가 있다던가 그런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이버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른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상해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버도 엄연히 사람이 상처를 입게되고 하는건 똑같은데 다른 조치를 내린다면 모순된 일 같아요." (신고, 예방 등의 지원, B13)

"어른들이 도움을 준다면 일단 심각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알아서 될 것 같아요"(어른과 학교에 알림, A8)

-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행동**

청소년들은 잠자거나 학교에 있는 등 사용이 제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보고하는데, 하루 중 적은 시간이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컴퓨터를 통해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 등 스마트폰과 유사한 다른 기기를 통해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대안활동 없이 가만히 있거나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는 독서나 피아노 연주 등 취미활동을 하기도 하며,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 티비 봐요. 그리고 애들이랑 안놀고 집에 빨리 와서 엄마폰으로 게임해요"
(다른 매체활동, A3)

"양손으로 하는 일 빼고는 거의 다 스마트폰 하고 딱히 스마트폰 두고 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특별한 대안행동이 없음, B4)

"피아노 치거나 이정도 밖에 안 하는 거 같아요." (취미활동, B13)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가 자꾸 끊기고 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 (대인관계, B2)

• 스마트폰 사용을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당하거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 분실 또는 고장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답답하고 불안해 지며, 허전한 기분과 제약을 주는 대상에 대한 분노와 미움 등 부정적 정서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일부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강제적으로 빼앗겼을 때 드는 부정적 정서가, 단지 스마트폰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오히려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게 하여, 다시 돌려받았을 때 과식하듯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또래와의 소통 수단이 없어지므로 이에 따른 관계에서 단절되는 느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 대신 이와 유사한 다른 매체를 활용해 대안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고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는 잠깐이고 오히려 스마트폰 없는 상황에 쉽게 적응하면서 학업이나 자신의 시간을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선생님이 뺏어가면요 짜증나고 선생님이 대게 미워지고, 어디 놓거나 그랬을 때 되게 불안하고요"(심리 내적인 부정적 변화, B7)

"차라리 저는 핸드폰 없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끊기 힘들 줄 알았어요. 카톡 그런 것들이, 그런데 막상 뺏기고 나니까 별로 생각나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누가 핸드폰을 빨리 뺏어 갔으면 했어요"(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 B12)

"카톡으로 소통이 안되서 답답하고 친구와 단절된 것 같아요"(관계로부터의 단절감, B8)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내가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허락을 하지 않을 때 보통 장난을 치게 되어요"(대체행동을 하게 됨, A7)

• 스마트폰 사용 조절 방해 요인

스마트폰을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적절히 조절하며 사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적으로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서 무심결에 계속 사용하게 되고, 스스로가 자신이 중독수준에 있어서 사용을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사용 조절이 어려우며, 또래 관계에서 소통의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로 인해 사용 조절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들은 학업 등 일과 시간 이후에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부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조절이 어려우며, 또래 친구들이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하루 종일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요 중독이 된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뺏겼을 때 없으면 불안하고 줄이지도 못하는 것 같네요"(습관 및 중독, B9)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약간 남는 시간에 하는 편인데...남는 시간에 하지 말라고 하면은 조절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심하니까 심심풀이로 할 게 있는데 그걸 왜 굳이 안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 보내기 도구로 활용, B13)

"기능이 너무 많고 할게 많아서 줄이지 못한다." (기기 요소에 대한 흥미, A3)

"카톡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계속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못 빠져 나오는 거 같아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 B5)

"다른 애들도 다 쓰니까 나만 안쓰면 좀 그러니까 쓰게 된다." (기기의 대중성, A2)

• 스마트폰 과다 사용 예방 방법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되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용 시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두고 사용하지 않는 통제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고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을 보고했으며,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생들의 다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어른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 또한 스마트폰 사용 조절과 관련되어서 유용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중학생들은 스마트폰 이외에 다른 관심 거리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쏟는 에너지를 옮기면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갈 때 핸드폰을 일부러 집에 두고 온 적도 있어요"(개인의 자율적 규제 노력, A1)

"공부할 때는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에 놔둬요"(개인의 자율적 규제 노력, B6)

"스스로 조절이 안되서 공부할 때는 강제 차단 어플이라고 있어요. 시간 설정해 차단하고 공부하고 그래요. 집에서 자주 하면 부모님께 잔소리를 듣게 되요"(기기의 기능,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통제, B7)

"일단 부모님과 협의를 해서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요.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가 하는 시간이 되면 주고 시간이 다 되면 다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부모, 교사의 타율적 규제, B7)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관심을 다른 쪽으로 취미활동을 돌려가지고 친구들이 운동할 때 같이 나가서 놀거나 친구들하고 놀다보면 조절이 되고"(다른 관심사 개발, A8)

"친구 중에 수능을 먼저 본 친구가 있는데, 걔는 스마트폰을 사용은 하고 싶은데 못 사용

하니까 스마트폰 앞에 포스트 잇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붙여놓았다"(개인의 인식계고 노력, B1)

•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대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것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떻게 개입하기를 원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개입을 하려면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강제적인 방법을 활용해 제지해 주는 것을 보고하였다. 특히 가정 보다는 학교 장면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는 등 자율적인 통제가 어렵다면 강제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다수의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은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 규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자신들과 협의하여 조절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신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는 아침 조례시간에 휴대폰을 걷거나 휴대폰 배터리를 빼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강압적 통제, A8)

"부모님이 핸드폰 별로 못 하게 요금제를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강압적 통제, B9)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건 소수의 의견이었어요. 그걸 애들한테 통보했을 때.. 왜 저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전체적으로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계내고 통계결과를 나타내서 정확하게 신뢰도 있게 해서 애들이 그거를 받아 들일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협의하여 조절, B11)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도움보다는 짜증이 나요"(협의하여 조절, B13)

"핸드폰을 자제시켜 주는거로 핸드폰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기숙사생 같은 경우 밤까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꺼리를 준다던지, 정보를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를 복도에 놓는다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애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가치가 떨어지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대안 마련, B13)

•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있는 가까운 주변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만약 자신의 동생이나 친구 등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다수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안활동을 찾아서 같이 해주겠다는 반응을 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 혹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대안 활동들을 추천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경험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피해와 좋지 않은 점을 충고해 주므로 경각심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나의 친구나 동생, 이성친구가 스마트폰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서 여행을 한다거나 여가활동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대안활동 함께 하기, B13)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해가지고요, 내가 막 이렇게 됐다 그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어요."(충고 및 조언, B7)

"스마트폰 말고 다른 관심이 있는 분야로 즐길 수 있는 걸로 도울 거에요."(대안활동 계안, A6)

"핸드폰을 만지고 있을 때 대화 시간이 부족하니 대화를 더 많이 하는게, 가족들이 노력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가족의 관심, B11)

Ⅳ 요약 및 제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나에게 일어난 변화 및 문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즐거움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웹툰보기, 음악듣기 등을 하였다면 이제는 손 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중독이라는 문제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안에서 더욱 강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스마트폰 이라는 기기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문제와 큰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통해 또 다른 또래관계의 장(場)을 만들고 오프라인과는 다른 친구관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또래관계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공간 안에서 카카오톡, 싸이홈페이지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직접 만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친구관계가 중요한 청소년기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친구들과 이런 긴밀한 상호작용의 긍정적 효과라면 친구들과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왕따와 같은 집단따돌림 문제가 더욱 쉽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변화이다. 응답자중 소수이지만, 스마트폰 게임을 가족이 함께 하면서 관계가 좋아졌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사는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고 잠시라도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학업성적도 떨어지게 되고 시력도 나빠지는 것을 호소하는 바, 청소년들 역시 스마

트폰 사용으로 인해 가정과 학교를 비롯해 심리 내적인 영역 안에서도 다양한 변화 경험을 지각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부정적인 방향임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이 힘든 이유를 습관적이고 중독수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특별히 다른 할 일이 없거나 스마트폰 대신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티비와 같은 다른 매체활동을 하는 등 유사한 기기로 수평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중학생, 고등학생과 같은 학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사용 조절을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행동 변화의 가장 첫 단계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서 청소년 스스로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용시간 조절을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이야기하였다. 다만, 이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중학생이 기계 자체를 다른 곳에 두는 등 자율적인 규제노력에 편중되어 대안을 논하는 반면에, 고등학생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거나, 부모나 선생님을 통한 타율적 규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등 사용조절과 관련되어 다양한 대안을 이야기 하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되어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하기 전 충분한 설명과 사용시간을 미리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대해 학령에 따른 대처 방식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용 조절과 관련되어 학령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령이 올라갈 수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자율적인 통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추후에 사용 조절과 관련된 매뉴얼 개발에 활용되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강제적으로라도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이 있어야 함을 주로 학교 장면에서 보고하고 있는 바, 청소년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대한 지침이 학교 장면에서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본 연구에 응답한 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과 가까운 주변인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스마트폰 사용을 대신할 수 있는 재미있

는 활동을 같이 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같이 대안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폭력문제와 그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주로 카카오톡을 하면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고, 이러한 다툼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왕따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르는 사람에게 음란 메세지가 계속해서 전송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학교나 어른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 받는 것 보다는 일단 스스로 해결하거나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소년 스스로도 이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사용시간을 조절해 보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 보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전부터 부모는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사용시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학령에 따라,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과 관련되어 무조건 강제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학생간 협의를 통해 규칙을 정해서 적용하는 의견까지 학령 수준에 따라 일관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지침을 추후 연구를 통해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조절에 어려움을 인식하며,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신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자가진단테스트를 개발하여 스스로 사용시간과 태도를 점검해 보며, 결과에 따라 도움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사용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스마트폰 사용에서의 언어사용과 예절, 사용시간 조절과 관련된 내용

을 교육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적 흐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를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기기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은 중독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높이겠으며, 특별히 자기 조절 능력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은 더욱 취약한 상태로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내에서 왕따문제, 성문제, 폭력문제 등과 같은 이차적인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으며, 당면한 어려움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1999).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현문사

김은경(2006).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수준에 따른 자기 통제력 및 자기 조절 학습능력의 차이.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철하(2011). 자기결정성 요인이 스마트폰 몰입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이민석(2010).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애라(2008). 친애욕구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의 중재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주영, 문지숙, 김민지, 김예지, 김현아, 허보름, 김재언, 정선이, 정지은, 정현지, 이은하, 최정혜, 홍서영, 배정이. 박현주, 홍희정(2011).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건강문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Krueger, R.A.(1998). Analyzing &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Focus Group Kit6). Thousand Oaks, CA; Sage.

Krueger, R.A., & Casey, M. A.(2009). Focus Group: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4th). Thousand Oaks, CA; Sage.

스마트폰 관련 본원 상담사례 동향 분석

이영선, 조은희, 이현숙, 김래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팀)

I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국민 중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서서 휴대전화 이용자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신규 이용자의 24.6%가 10대 청소년으로, 전년말 대비 11.6%가 증가되었다.(이슈투데이, 2012.10.08)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cyber-bulling, 성관련 범죄, 절도, 중독 등)이 날이 갈수록 이슈화 되고, 기사화 되어가고 있다.

"카카오톡을 하다가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을 당한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마트폰 대화방에서 15명의 남학생들이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성적 비방까지 서슴치 않고 쏟아내었습니다.", "강양이 죽기 50일전에 있었던 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약 60여 일 동안 괴롭힘을 당하가 아버지가 알게 되었고, 이를 알고 대응하기 시작한 후 5일 만에 딸아이가 자살을 하게 됨"(KBS 뉴스 따라잡기, 2012. 8. 20)

이러한 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이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청소년 개인과 부모 통제의 책임에 국한 되지 않고 이제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원은 청소년상담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상담 장면에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 호소되고 있는지 그 동향을 파악하여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과 관련된 청소년, 부모, 지도자들이 겪는 심리적, 환경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상담장면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 연구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글로 쓰여진 자료를 연구 분석하는 것이다.

1) 분석자료 추출 및 용어

본원은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시스템을 통해 상담사례가 기록되고 관리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추출은 CYS-NET에 기록된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례 중 '스마트폰', '휴대폰', '폰'이라는 주제가 포함된 사례를 1차적으로 추출하였고, 추출된 사례들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휴대폰과 관련된 갈등이나 문제가 호소되고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자료 추출 시 사례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상담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자자 직접 시행하였다.

본 분석은 상담의 특성상 상담자가 직접 기록한 내용만을 분석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분석 자료 주요 내용 정리 시 기존 상담기록에 적혀 있던 것을 그대로 살려 정리하였으며, 분석 자료를 서술 할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정리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라는 용어 속에 '휴대폰, 폰' 등의 표현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2) 대상

이 분석은 2010~2012년 8월말까지 본원에서 이루어진 개인상담과 전화상담 전체 사례 기록 20,924건 중 '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629개(개인상담 78개, 전화상담 551개)의 글을 1차적으로 추출하여, 이 중 스마트폰과 관련된 갈등과 고민이 있는 217개(개인상담 51개, 전화상담 166개)의 글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의 특성으로 개인상담의 경우 청소년이 주된 대상이며, 전화상담의 경우 부모나 일반인(부모외 가족, 교사 등)의 이용률이 높았다. 이는 전화상담이 익명성과 즉시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분석된 영역과 주 호소내용에 있어 개인상담과 전화상담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밖에도 개인상담의 경우 접수 당시 호소문제가 반드시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로 의뢰되지 않았더라도, 상담 진행 과정상에서 그와 관련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된 기록 내용이 있다면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사례의 내담자 기본적 특성은 <표2>와 같으며, <표1>은 분석된 자료의 연도별 현황이다.

〈표 1〉 연도별 현황(N=217)

(단위 : 건수)

구분	개인상담	전화상담	합계
2010년	22	61	83
2011년	12	47	59
2012년 1월~8월	17	58	75
합계	51	166	217

※ 위의 수치는 본원의 상담사례 내용을 임의로 분석하여 추출한 결과이므로 통계적 의미가 없음을 밝힘

〈표 2〉 대상자 현황(N=217)

○ 개인상담

구분	성별			학령별				
	남	여	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계
건수	32	19	51	7	29	11	4	51

○ 전화상담

구분	성별			학령별			
	남	여	계	청소년	부모	일반인	계
건수	23	143	166	8	150	8	166

2. 분석과정

자료 분석을 위하여 1차적으로 기록된 상담사례 중 '스마트폰' 이 포함된 내용만을 추출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그 목록 중 '스마트폰' 으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된 자료들만 다시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자료는 본원에서 상담업무를 관리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3명의 상담원과 1명의 상담조교수가 참여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의미 있는 자료들을 묶어 주요영역을 분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개인상담과 전화상담 각각에 대해, 연도별로 호소된 내용을 통해 유사한 호소 내용을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로 정리하였다. 영역을 나눌 때는 복합적으로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보이는지에 초점을 두어 분류하였다.

Ⅲ 결 과

1. 전체 결과

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주요 영역에 대한 자료는 <표 3>과 같으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연도별로 호소하는 문제의 양상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새로 구매하는 문제로 인한 부모자녀간의 갈등 내용들이 많았으며, 2011년도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거나 인터넷과 게임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성과 관련된 음란물 접촉 문제, 스마트폰을 갖기 위한 절도나 금품갈취 등의 문제들이 나타났다. 2012년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행동적, 심리·정서적 변화들로 인한 고민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고민 등이 나타났다.

〈표 3〉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호소문제 영역

영역	2010년	2011년	2012년※
① 부모와 갈등	○	○	○
② 교사와의 갈등	○	○	○
③ 친구와 갈등	○	○	○
④ 사이버 언어폭력	○	○	○
⑤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에 관한 고민	○	○	○
⑥ 스마트폰 과다 사용	○	○	○
⑦ 게임 과다 몰입	○	○	○
⑧ 성(음란물 접촉, 이성교제 등)	○	○	○
⑨ 통제 도구로서 사용	○	○	○
⑩ 스마트폰 구매에 대한 고민	○	○	○
⑪ 절도 및 금품갈취	○	○	○
⑫ 학습 방해	-	-	○
⑬ 소액결제 과다	-	-	○
⑭ 스마트폰 사용 제한 후 나타나는 이상행동	-	-	○
⑮ 기타	○	○	-

※ 2012년도는 1월1일~8월30일까지

2. 개인상담 분석 결과

개인상담에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된 건수는 2010년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총 51건으로 파악이 되었다. 분석한 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도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

2010년도 상담내용 분석 결과,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은 부모와 갈등,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 사이버 언어폭력,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각 영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참조>

첫 번째로 '부모와 갈등' 은 시대적 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스마트폰 구매로

인한 갈등이 많이 호소되었다. 이는 2010년도가 PC와 같은 운영체제(OS) 및 웹과 위치추적 시스템을 탑재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 500만대로(지디넷코리아, 2010.7.30), 2009년도보다 이용자가 많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과 그 맥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부모와 잦은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어김으로 인해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며, 스마트폰 사용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에 게임을 설치해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여 생긴 갈등,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내용에 너무 집착하여 사생활을 침범함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지나치게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면서 생기는 갈등에 관한 내용들이 상담에서 호소되었다.

-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사달라고 아이처럼 땡강을 부림 / 핸드폰을 안사준다고 하니 집을 나가서 안들어옴
- 핸드폰으로 게임을 계속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부모와 합의되지 않아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함
- 아버지가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어기면 엄격하게 훈계를 많이 해서 힘듦
- 핸드폰 요금 30만원이 나와서 갈등이 있었음

※ 개인상담 사례 기록 중 ‘휴대폰’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임

두 번째 영역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처벌과 강화의 수단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로 인해 청소년들은 부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여겨 부모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라는 매체 사용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합의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 늦게 들어오면 핸드폰 뺏은 후 없애버리려고 해서 힘듦
- 교복치마를 줄여 입으면 핸드폰을 정치시키겠다고 통보하고, 치마 줄여 입어서 핸드폰이 중지되어 속상, 중지된 것을 해제해주길 바람
- 엄마가 내 사생활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뒤져 보는데 기분 나쁨

※ 개인상담 사례 기록 중 '휴대폰'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임

세 번째, 사이버 언어폭력과 관련되어서는 욕설이 섞인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내서 야단을 맞거나, 평소에 괴롭히던 친구가 스마트폰 문자로도 계속 괴롭혀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친구들끼리 문자를 통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아 기분 나쁘다는 내용이 있었다.

- 친구와 욕이 오간 자녀의 문자를 보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함
- 욕설 섞은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냈다가 선생님과 엄마에게 혼이 남

※ 개인상담 사례 기록 중 '휴대폰'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임

네 번째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관한 것으로, 스마트폰 인터넷에 너무 몰두하여 학업에 열정이 없어 걱정이라는 호소문제가 있었으며,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있는 내담자가 상담 도중에도 스마트폰을 여는 경우가 있어 상담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인터넷으로 소설을 읽는 것 때문에 상담자를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집에서 이렇게 하면 혼이 나기 때문에 상담시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4〉 2010년도 개인상담에서의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

영역	주요 사례
부모와 갈등	①휴대폰 구매로 인한 갈등 ②휴대폰 사주지 않아 가출 ③휴대폰 사용 중 규칙 어김에 대한 훈계 후 갈등 ④휴대폰 요금 과다로 인한 갈등 ⑤휴대폰 게임으로 인한 갈등 ⑥아버지의 휴대폰 집착으로 인한 갈등 ⑦핸드폰 사용에 대한 지나친 간섭
통제 도구로서 사용	①늦은 귀가 통제도구로 휴대폰 정지, 어려움 호소 ②학교 가지 않으려 해서 휴대폰 정지, 문제 악화 ③교복치마 줄여 입은 행동으로 휴대폰 정지, 갈등 ④자녀의 다른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휴대폰 빼앗아 감추기 ⑤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서 휴대폰을 얻게 됨
사이버 언어폭력	①욕설 섞인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내서 혼남 ②평소 괴롭히던 친구가 문자로도 계속 괴롭힘 ③친구와 문자로 욕이 오가는 상황이 염려 됨
스마트폰 과다 사용	①핸드폰 인터넷에 너무 몰두해서 학업에 열정이 없음 ②상담도중 휴대폰을 여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사용 문제가 있음

2011년도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

2011년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과다 사용 및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호소내용이 있었으며, 이러한 유형의 호소 내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5 참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새벽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서 학교에 가면 잠을 잔다거나, 부모가 맞벌이로 인해 집에 없을 때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거나 게임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갑자기 공부에 흥미를 잃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몰입하게 되면서 공부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친구에게 음란문자를 주고받는 문제로 고민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스마트폰으로 야한 메시지를 연결하여 사용요금이 과다하게 나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 핸드폰 게임을, 학교 갔다 와서 잘 때까지 하루 6시간 했으며, 지하철 타거나 할 일이 없을 때 사용함.
-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어플 하느라 (새벽) 4-5시에 자고, 학교 가서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함.
- 매일 밤늦게까지 휴대폰으로 게임 및 야한 메시지 연결하여 통신료가 140만원 나옴

※ 개인상담 사례 기록 중 '휴대폰' 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임

〈표 5〉 2011년도 개인상담에서의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

영역	주요 사례
스마트폰 인터넷 과다 사용 및 게임 과몰입	① 휴대폰으로 게임을 많이 함(요금 많이 나와 맞음) ② 휴대폰으로 게임과 인터넷을 많이 함 ③ 새벽까지 습관처럼 핸드폰 게임을 하고 학교 가서 잠 ④ 평소에 핸드폰 게임 달고 삶(성적 낮아짐) ⑤ 잠자는 시간 빼고 컴퓨터와 휴대폰만 하게 됨 ⑥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게임하여 요금 많이 나옴 ⑦ 학교에서 핸드폰 게임에 너무 몰두하여 상담 권함
성 (음란물)	① 휴대폰 음란문자 사용으로 학교에서 징계 받고, 왕따 당함 ② 게임, 야한 메시지 연결하여 요금 140만원 나옴

2012년도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

2012년의 경우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 <표6 참조>. 부모와의 갈등, 게임 과몰입, 스마트폰 과다 사용, 사이버 언어폭력, 성(음란물), 학습방해, 소액결제 과다 등 총7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영역 중 2010년과 2011년도와는 조금 다른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첫째,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성적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호소내용이 나타났으며, 둘째, 이전에 컴퓨터 온라인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스마트폰 게임으로 몰입하게 되어 이와 유사한 문제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폰을 끊을 생각은 없지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고 느끼고 학업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
- 핸드폰을 통해 불량한 아이들에게 오래전부터 돈을 빼앗기고, 핸드폰 비용이 많이 나와 내역 검색해봤더니 여러 편의 야동을 다운 받아 본 것을 알게 됨.
- 매일 게임을 하는데 학교 끝나고 와서 컴퓨터로 10시까지 게임하고 어머니 제지가 있으면 휴대폰으로 함. 주말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로만 함.

※ 개인상담 사례 기록 중 '휴대폰'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임

〈표 6〉 2012년도 개인상담에서의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

영역	주요 사례
부모와 갈등	① 휴대폰 받기 위해 말 잘 들었으나, 주지않아 PC방에 감 ② 엄마의 카톡프로필을 보고 서운함(오빠에 대한 그리움)
게임 과몰입	① 컴퓨터 대신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어 자기 전까지 게임 지속 ② 형이 핸드폰으로 게임만해서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화남 ③ 매일 게임을 함, 컴퓨터로 하다가 안되면 휴대폰으로 함 ④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하여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옴 ⑤ 중학교때부터 게임 했는데, 핸드폰, 아이팟으로 더 함 ⑥ 무기력하고 텔레비전과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음
휴대폰 과다 사용	① 스마트폰 하루 종일 해서 학업 방해, 가족관계, 친구관계 안좋음 ② 학교 제출한 시간 이외 스마트폰을 함, 엄마방에 두고자라고 해서 화를 많이 냄
사이버 언어폭력	① 가해 친구 휴대폰으로 교사에게 욕설문자 보내어 친구 혼내고 싶어함 ②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 욕설을 들음
성(음란물)	① 스마트폰으로 야설을 봄
학습 방해	① 매일 공부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보느라 주의가 흩어져 걱정 ② 스마트폰(게임,카카오톡)하느라 공부 못하는 친구보다 성적이 더 낮아짐
소액결제 과다	① 부모님과 본인 핸드폰으로 160만원을 결재하여 상담하게 됨 ② 휴대폰으로 야동 보게 되어 요금 많이 청구됨

※2012년도는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내용임.

이상으로 개인상담에서의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바램과 욕구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있었다면, 2011

년도에는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호소 내용이 많았다. 또한 2012년도에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 중 게임 과몰입과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적 변화는 스마트폰이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옴에 따라 다양한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전화상담 분석 결과

전화상담에서 휴대폰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된 건수는 2010년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총 166건으로 파악 되었다. 개인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화상담에서도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호소하는 고민이라기보다 부모나 기타 가족 및 지도자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청소년 주변인이 보는 시각과 걱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체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방법을 몰라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담자가 보다 구체적인 개입방법이나 관련 정보 및 지식들을 잘 알고 대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통적으로 호소되는 내용으로는 '성'과 관련된 것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메신저로 주고받는 등 부적절하게 '성'과 관련하여 접촉하게 되는 문제였다. 이러한 호소내용이 많은 이유는 전화상담이 갖는 익명성과 즉시성과 같은 특성이 대면으로 상담하기 어려운 주제를 호소하기 때문이며, 특히 부모가 개입하기 어려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2010년도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

2010년 전화상담에서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과다 사용 및 그에 따른 부가적 문제로 인한 부모자녀간의 갈등, 스마트폰 상에서 드러나는 부적절한 성(음란물 접촉 등)과 관련된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표7 참조>. 이는 스마트폰이 초기 보급되던 시기였으며, 스마트폰 구매 전, 충분한 교육이나 인식 없이 기기를 갖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 보여진다.

두 번째로는 2010년도 개인상담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자녀를 통제하

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화상담에서는 부모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고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하는 경우였다.

세 번째로 자녀가 문자로 욕설을 보내거나, 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사이버폭력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내용도 있었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폰 구매 시기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의 상담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스마트폰을 사주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부모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 핸드폰은 공부에 방해가 되니 쓰지 말라고 하지만 손에서 놓기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얼마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 내용을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보니 문자를 받은 흔적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걸로 이야기를 했더니 문자 내용 보다는 엄마가 핸드폰을 봤다는 것에 화를 내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고 싶다.
-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다. 반을 주동하는 아이가 쟤 싫다고 해서 몇 명이 시작한 것이 이제는 반 전체가 아이를 따돌리는 것 같다. 어제 운동회라 학교에 갔는데 정말 애들이 한명도 아이한테 아는 척도, 인사도 안하더라. 애도 너무 힘들다고 전학 가고 싶다고 해서 한 학기만 버텨보고 힘들면 이사를 가자고 했다. 어제는 애 핸드폰으로 찐따 라고 잔뜩 적혀서 보낸 문자가 왔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 딸애가 네이트에서 문친이라는 걸 신청했는데, 보니까 변태는 사절이고 이런 것들을 써 놓았더라. 최근 문친 사이트에 번호를 올려놓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자신은 고1 여자라고 하면서 얼마 전 부터 가슴을 보고 싶다고 해서 딸애가 싫다고 전화 끊었지만, 얼마 뒤 자기 가슴사진이라면서 찍어서 보내고 너도 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학교에 자기가 아는 남자 후배들을 풀어서 널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해서 애가 무서워서 가슴을 찍어서 보냈고, 후에 얼굴도 같이 찍어서 보내야 된다고 협박해서 같이 찍어 보냈는데 웃으면서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보냈다고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한다. 아이가 겁이 나 말하지 못 하다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엄마에게 말했다. 그걸 듣고 내(엄마)가 지방 경찰청에 연락해보니 가해자를 만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지우는 수밖에 없다고 하여, 내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음성을 남겨놓으니 사진은 지웠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다.

※ 전화상담 사례 기록 중 '휴대폰' 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임

〈표 7〉 2010년도 전화상담에서의 휴대폰 관련 호소내용

영역	주요 사례
1.부모와 갈등	① 과다사용(손에서 놓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 ② 휴대폰 파손으로 인해 갈등 ③ 일반휴대폰에서 스마트폰 교체로 인한 갈등 ④ 공부하는 시간에도 휴대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갈등 ⑤ 휴대폰 분실로 인한 갈등 ⑥ 휴대폰 과다 사용에 대한 제재 이후 친구와 부모에게 욕설문자 보냄 ⑦ 소액결제 요금 과다로 인한 갈등 ⑧ 핸드폰에 집착하고 문자 많이 해서 압수로 인한 갈등
2. 교사와 갈등	① 학교에서 휴대폰 미제출로 인해 교사와 갈등
3. 친구와 갈등	① 새로 산 휴대폰 자랑하다 친구와 갈등 생김 ② 휴대폰 빌려준 후 오해 생겨 친구와 갈등 생김
4.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고민	① 문자로 욕설 사용하여 친구관계 갈등 ② 핸드폰 번호 도용하여 욕설 문자 보냄 ③ 따돌림 당하던 아이가 핸드폰 문자로 더욱 문제 심각 ④ 협박문자(선배언니, 사이버상으로 알게 된 사람) 받음 ⑤ 욕설 문자를 받음 ⑥ 친구와 싸운 후 인터넷에 휴대폰번호 유출함
5. 성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	① 핸드폰으로 교사 치마 속 찍어서 친구들과 돌려 봄 ② 주운 휴대폰으로 여자아이들에게 성희롱 문자 보냄 ③ 문자로 자위행위 과정과 느낌을 아는 언니와 주고받음 ④ 문자로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여자친구와 주고받음 ⑤ 핸드폰 문자친구에게 자신의 가슴을 찍어 보냄 ⑥ 여자친구와 신체사진 주고받음 ⑦ 폰섹스 염려됨 ⑧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찍어 여학생에게 발송, 고소당함 ⑨ 문자로 여자 친구와 야한 문자 주고받음 ⑩ 인터넷 게임하면서 음란성 문자 주고받음
6. 게임 과몰입에 대한 고민	① 요금과다하게 나와서 게임중독이 의심됨 ②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게임을 심하게 함 ③ 핸드폰 게임하느라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음
7. 휴대폰 과다 사용에 대한 고민	① 문자 과다 사용(새벽까지 친구들과 문자) ② 휴대폰 인터넷으로 판타지 소설에 과다 몰입 ③ 휴대폰과 컴퓨터만 하면서 보냄
8. 스마트폰 구매에 대한 고민	① 자녀에게 휴대폰을 사줘야 할지 고민 ② 핸드폰 원하지만 사주지 않자 등교거부
9. 스마트폰 관련 절도	① 학교에서 친구의 아이폰을 훔침 ② 어릴 때부터 도벽 있었는데, 아이팟, 핸드폰 훔치고 거짓말 함
10. 자녀의 통제 도구로 사용 후 생긴 고민	① 문자 몰래봐서 이성관계(친구) 알게 되어 충격, 걱정 ② 아이의 거짓말에 대한 벌로 휴대폰 뺏음 ③ 문자 몰래 보고 아이가 성관계 갖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
11. 기타	① 여자친구와 문자 할 때 거짓말을 많이 해서 고민 ②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아 학업에 방해될까봐 걱정

2011년도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

2011년도 역시 2010년도와 유사하게 스마트폰으로 인한 성과 관련되어 호소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 또한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신체 일부를 발송하는 경우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요구를 받는 경우 등으로 유사하게 호소되고 있었다<표8 참조>.

주요 사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 갈등으로는 집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거나, 시험기간 중이나 공부하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 또 너무 늦은 시간까지 메신저를 사용하는 문제, 구매여부에 관한 문제, 게임 캐릭터를 수 십 만원어치 구매하여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잔소리를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었다. 교사와의 갈등은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에 집착하여 스마트폰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아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성과 관련된 문제를 부모가 알게 되는 경로는 주로 우연히 또는 의도적로 자녀의 스마트폰을 검사하게 되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매우 당황하고 놀라서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고 접근해야 할지를 몰라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아들이 음란사이트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제는 핸드폰을 보니깐 남자 성기 사진과 여자 나체 사진을 여자 친구에게 보낸 것을 봄. 남자 성기 사진에서 팬티를 보니깐 아들의 팬티임. 평소에 어머니가 여자 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교육을 시켰는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됨.
- 중 1 남학생. 조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와 살고 있는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 핸드폰으로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요금은 몇 백 만원이 나왔음. 달래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은 없었음. 얼마 전에는 할머니가 고모한테 일렀다며 할머니에게 욕을 했다고 함. 아이를 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받고 싶음.
- 아들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했으나, 어머니는 아직 학생이고 경제력을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음.
- 그 이후로 아들이 한 달 동안 말도 안하고, 밥도 먹지 않으려 함. 게임만 하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물음.

※ 전화상담 사례 기록 중 ‘휴대폰’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임

〈표 8〉 2011년도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

영역	주요 사례
1. 부모와 갈등	① 과다사용(손에서 놓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 ② 공부하는 시간에도 휴대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갈등 ③ 스마트폰 구매여부로 인한 어머니와 갈등 ④ 늦은 시간까지 친구와 메신저로 인해 갈등 ⑤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 케릭터 수십만원어치 구매로 갈등
2. 교사와 갈등	① 수업시간에도 휴대폰에 집착, 학교 규칙 지키지 못함
3. 친구와 갈등	① 휴대폰 때문에 친구관계 오해 생겨 따돌림 당함
4.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고민	① 학교 선배가 괴롭히는 문자 보내옴 ② 친구관계 멀어진 후 핸드폰과 싸이홈피에 비난과 욕설을 함 ③ 친구가 사진 마음대로 찍어서 홈피에 올려서 신고하고 싶어 함
5. 성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	① 핸드폰으로 남자 성기 사진과 여자 나체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보냄 ② 학부모와 폰섹스 하여 경찰에 고소당함 ③ 성적인 부위 사진 올리고, 음란채팅 함 ④ 핸드폰에서 야한 동영상이 발견됨 ⑤ 핸드폰으로 성기 사진 찍어 채팅으로 만난 여자에게 보내, 신고 됨 ⑥ 핸드폰으로 성인만화 많이 봐서 요금 많이 나옴 ⑦ 스마트폰으로 남자들끼리 하는 성행위 찾아서 봄 ⑧ 핸드폰으로 야한 소설(근친상간 등) 많이 읽는 것 목격 ⑨ 핸드폰에서 성관련 음담패설 문자보고 놀람 ⑩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야한 만화나 소설 읽는 것 같아 걱정
6. 게임 과몰입에 대한 고민	① 요금과다하게 나와서 게임중독이 의심됨 ②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게임을 심하게 함 ③ 인터넷, 휴대폰 게임과다로 성적 하락, 휴대폰 압수 고민 ④ 학교에서 핸드폰 게임 과다로 교사에게 휴대폰 빼앗김 ⑤ 핸드폰으로 인터넷, 개임 많이 해서 요금 많이 나옴
7. 휴대폰 과다 사용에 대한 고민	① 밥 먹으면서도 문자를 보내거나 영화 봐서 걱정 ② 핸드폰으로 사람 목소리 들어야 안심이 됨 ③ 여자 친구 교재 후 문자 중독 같음 ④ 인터넷과 핸드폰에 중독된 것 같은 의심이 됨
8. 스마트폰 구매에 대한 고민	① 자녀에게 휴대폰을 사줘야 할지 고민 ② 스마트폰 안사주면 고입원서 안내겠다고 협박을 함
9. 스마트폰 관련 절도, 사기	① 스마트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가지고 도망 가버림 ② 스마트폰 갖기 위해 절도나 사기를 침
10. 자녀의 통제 도구로 사용 후 생긴 고민	① 문자 몰래보니 심한 욕설 문자 있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함 ② 문자내용에서 성관계 맺은 사실 알게 됨 ③ 문자 몰래보니 동성친구와 동성애하는 것을 보고 놀람
11. 기타	① 모 핸드폰에 나체 사진과 이상한 문자왔는데 이를 보고 아이가 자신을 의심할까 걱정 ② 학업에 방해될까봐 걱정(게임, 전화통화 잦음)

2012년도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

2012년도는 다른 연도에 비해 검색 기간이 8개월뿐이지만,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호소하는 문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 영역이 등장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제약이 따르게 되었을 경우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행동적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특징으로는 스마트폰을 뺏겨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경련을 일으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가출을 하고, 등교거부를 하는 등의 모습과 부모를 난폭하게 대하는 폭력적 행동, 욕설을 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낮은 연령의 자녀가 스마트폰을 갖기 원할 때, 이를 구매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모의 고민이 나타났으며, 구매해 주지 않을 경우 자녀에게 나타나는 과도한 행동화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인지 의심된다는 고민도 있어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학생 아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여 어제 밤 엄마가 핸드폰을 뺏어감. 계속 주지 않자 울며 대성통곡을 시작함, 결국 경련을 일으켰고, 119가 왔다갔음. 산소중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으나.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 스마트폰을 다시 사주어야 하나
- 아이가 가출했다가 핸드폰을 훔치다가 걸려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가는 중이다.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 게(말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전화했다.
- 핸드폰을 사달라고 한다. 이게 사줘야할 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계약서도 쓰고 조건도 걸었지만, 사주는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인터넷 사용도 어떻게 자제해야 할지 모르겠다.
- 중2 아들이 초등학교 때 문자사용을 너무 많이 하여 사용료가 엄청나게 청구되어 부모와 합의하에 핸드폰을 없앴고, 현재까지는 핸드폰 없이 지내왔다. 중1때 필요하면 다시 사 주겠다고 하였으나 필요 없다고 하며 다녀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최근에 핸드폰을 사 달라고 한다. 주변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스마트 폰을 사주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아이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살고, 핸드폰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음.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이것을 핸드폰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심.

※ 전화상담 사례 기록 중 ‘휴대폰’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임

〈표 9〉 2012년도 스마트폰 관련 주 호소내용

영역	주요 사례
1. 부모와 갈등	① 공부 할 때도 스마트폰 사용하여 갈등 ② 스마트폰 사용문제로 엄마와 갈등 ③ 스마트폰으로 게임, 만화 보는 문제로 부모자녀 갈등 잦음 ④ 핸드폰으로 게임하고도 안했다는 거짓말로 부모자녀 갈등 ⑤ 휴대폰 사용시간 과다로 정지시킨 후 갈등
2. 교사 및 학교에서 갈등	① 핸드폰으로 친구 사진 찍어 놀리는 등 잘못된 행동으로 문제 됨 ② 핸드폰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오해받아 부당한 대우받고 교사와 갈등 생김
3. 친구와 갈등	① 휴대폰 훔쳤다는 누명쓰고 친구들에게 폭력과 협박 받음
4.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고민	① 괴롭히는 친구로부터 협박 문자 받음
5. 성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	① 음란물 다운받아 봄 ② 낯선 남자와 카카오톡 하다가 성기 사진과 신음소리 동영상 강요받음 ③ 아들 핸드폰에 남자 성기사진 있어 동성애자인지 걱정 ④ 딸에게 자위행위 방법 알려주고 여성 성기 사진 보내는 남자 있음 ⑤ 초6아이가 30대와 고등 남자 알게 된 후, 포르노와 동영상 봄
6. 게임 과몰입에 대한 고민	①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게임 많이 하여 게임중독 의심 ② 스마트폰으로 게임 많이 해서 중독인지 의심 ③ 스마트폰 게임 과다로 일반폰으로 교환하고자 하는데 고민 ④ 핸드폰 게임에 빠져 요금이 수 십만원이 나옴 ⑤ 수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시간을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지내서 걱정
7. 휴대폰 과몰입에 대한 고민	① 스마트폰에 하루종일 매달려 있음 ② 단체카톡 하느라 핸드폰 손에서 놓지 않아 일반폰으로 교체하려는데 고민 ③ 아이폰 늦게까지 하고, 주로 가지고 놀아 걱정 ④ 인터넷과 휴대폰에 집착을 해서 중독이 의심 ⑤ 핸드폰 사용 시간이 많아서 걱정 ⑥ 전국적으로 친구만들어 놓고 문자를 보내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음 ⑦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 요금이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나옴
8. 스마트폰 구매에 대한 고민	① 인터넷 게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을 원한다고 사줘야 하는지 걱정 ② 카카오톡 하고 싶어서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는데 고민 ③ 일반폰을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줘야 하는지 고민 ④ 다른 아이들 다 있다고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는데 사줘야 하는지 고민
9. 스마트폰 관련 절도 및 금품갈취	① 학교 선배가 아이 핸드폰과 부의 핸드폰 가져오라고 해서 팔아버림 ② 가출 후 핸드폰 훔치다가 경찰서에서 연락 옴

영역	주요 사례
10. 휴대폰 사용 제한 후 나타나는 아이의 이상행동	①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여 혼내면 반항하여 고민 ② 밤새 카톡 많이 하여 뺏었더니 난폭해지고 욕을 하고 대듬 ③ 학교에서 갤럭시 노트 사용하여 뺏어두었는데 분실 됨. 이 일로 자해를 함 ④ 스마트폰 사달라고 조르는데 안사준다고 하니 욕을 함 ⑤ 스마트폰 사용 시간 길어 뺏으면 손찌검 하는 등 난폭 행동을 함 ⑥ 스마트폰 사용 많이 해 뺏었더니 경련 일으켜 119다녀감. 다시 줘야 하는지 고민 ⑦ 스마트폰 분실 후 분노조절 못하는 모습 보임 ⑧ 학교에서 휴대폰 뺏긴 후 새로 사주지 않으면 가출하겠다고 하고 가출함 ⑨ 핸드폰 뺏긴 후 등교거부와 가출을 함
11. 자녀의 통제 도구로 사용 후 생긴 고민	①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대화 한 내용 보니 흡연한 사실 알게 되어 충격 ② 핸드폰 내용 보니 여자친구와 성관계 가진 사실을 알게 됨 ③ 핸드폰 내용으로 남자친구와 성관계 가진 사실을 알게 됨
12. 기타	① 학원 수업 중 핸드폰 과다사용으로 잘림

※2012년도는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내용임.

Ⅳ 요약 및 제언

본 동향분석은 청소년상담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청소년 문제가 날이 갈수록 이슈화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심을 갖고, 이러한 현상을 올바르게 개입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본원에서 이루어진 개인상담과 전화상담 전체 사례 기록 20,924건 중 ‘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629개(개인상담 78개, 전화상담 551개)의 글을 1차적으로 추출하여, 이 중 스마트폰과 관련된 갈등과 고민이 있는 217개(개인상담 51개, 전화상담 166개)의 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자료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상담팀의 상담원 3명과 상담조교수 1명이 자료 분석에 참여하여 주요 영역을 나누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연도별로 호소하는 문제의 양상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연도별로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도 개인상담에서는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바람과 욕구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있었다면, 전화상담에서는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문제로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호소되어 부모나 교사, 가족 등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어 상담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상담에 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스마트폰 상에서 드러나는 부적절한 성(음란물 다운로드, 특정 신체 부위 촬영하여 전송 등)과 관련된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전화상담의 특성(익명성, 즉시성)과 맞물려 부모들의 이용율이 높아 더욱더 두드려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2011년도에서 개인상담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과다 사용 및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호소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음란문자를 주고받는 문제도 호소되고 있었다. 반면, 전화상담에서는 2010년도와 유사하게 성과 관련되어 호소하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 내용으로는, SNS를 활용하여 음란문자를 주고받거나, 신체사진 또는 자위행위 하는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는 것 등이었다. 새로운 사례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근친상간)를 그린 소설이나 만화를 보는 등의 호소내용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해 성문제 호소가 개인상담 보다는 전화상담에서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2012년도는 개인상담에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는데, 특징적인 변화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성적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이전에 컴퓨터 온라인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스마트폰 게임으로 몰입하게 되어 이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전화상담에서는 분석 대상 기간이 8개월뿐 이었지만 다른 연도들에 비해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드러나는 호소문제 비율이 높았으며, 다른 연도에서 보이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신체적, 행동적, 심리·정서적 변화들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뺏겨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등교거부를 하기도 하며, 가출을 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폭력적인 행동과 욕설을 하는 문제들로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드러나는 동향들은 본원에서 이루어진 상담내용만을 분석한 것으로 일반화가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가 어떤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짐작케 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들이 이미 겪고 있었던 문제나 갈등(예: 친구관계 갈등, 인터넷 사용 조절의 어려움, 게임과다 몰입, 사춘기 심리적 변화로 인한 부모 자녀간의 갈등 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두 번째로는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자녀의 통제수단 및 처벌과 강화의 도구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스마트폰을 정지시키거나, 부서 버리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여 추후 자녀들이 가출 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아 정지된 스마트폰을 되살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스마트폰 자체가 강화물이 되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 스마트폰에 대한 올바른 사용 예절이나 방법을 모르는 상태로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역기능적인 모습이 더욱 드러나는 것으로 예측된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청소년의 경우 이미 인터넷 사용이나 게임에 대해 자기 통제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 더욱 깊게 빠져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리적 환경(한 부모, 이혼가정, 맞벌이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등)에 의해 스마트폰의 사용을 통제하지 못한 채 더욱 빠져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사용 했을 때의 모습이 기존의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유사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정지 시켰을 경우 신체적 증상(경련)과 폭력적 행동 등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중독 뿐 아니라 스마트폰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케 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상담장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청소년기에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비단 스마트폰의 문제 외에도 청소년의 발달적 관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나 그로인해 발생한 문제들의 대부분이 그것 하나만으로 문제가 증폭되지 않고, 복합적인 상황이나 다양한 경험들이 묶여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도 고려하여 개입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청소년들과 어른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통제 문제는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고, 실제로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관계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품행이나 생활태도, 학습에 의해 문제가 있을 경우 강제적으로 스마트폰을 단절시키기보다 보다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한 예절을 알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학교와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허락 없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게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그러한 것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알게 하는 것이다. 또한 SNS상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나, 불쾌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부모들이 스마트폰 구매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판단)해야 할 사항과 구매를 결정했을 경우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평소 자녀의 인터넷 사용 조절 및 통제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해 보고 그에 따라 구매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사용하지 못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스마트폰이 필요한 이유, 스마트폰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규칙이나 약속을 충분히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구매여부나 구매 시기를 판단해

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하드웨어적인 통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담배 케이스의 겉표지에 주의 경고문이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내에도 경고문을 삽입하여 전원을 켜거나 끌 때, 수시로 그 경고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이 매우 사소하고 미미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약간의 안전망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게임 이용자 종합 실태조사' 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와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결여 되었을 경우 게임에 과몰입 할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나타났다(아이뉴스24뉴스, 2012.3.1).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평소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될 위험 요인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책임이 주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야 하며, 그로 인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 역시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여 규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방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진흙탕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되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진 청소년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상연 · 마은정 · 최수건 · 홍대순(2011)은 스마트폰 사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삶의 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반대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사용자 일수록 삶의 질이 향상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뒷받침 하듯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스마트폰에 관한 건전한 사용문화를 정착시켜 주어, 그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 질 수 있도록 우리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지선(2011). 청소년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연, 마은정, 최수건, 홍대순(2011). 스마트폰 사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 정보와 사회, 20, 49-84.

홍종선, 박옥희, 최창현 공저(2000). 조사방법과 통계자료분석. 박영사.

인터넷 기사 '이슈투데이'(2012.10.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38766

지디넷코리아(2010.7.30)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00730141345

아이뉴스24 뉴스(2012.3.1)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40118&g_menu=020500&rrf=nv

토론 1

학교장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대책 “휴대전화를 둘러싼 이야기”

조 영 선

(경인고등학교 교사)

토론 1

휴대전화를 둘러싼 이야기

조영선(경인고등학교)

I 서론

학생들의 휴대전화 중독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많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휴대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어쩌면 휴대전화 사용을 올바르게 해야 할 주체는 학생들인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다음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홍보하여 인문학 공부를 했던 지역아카데미에서 진행한 토론의 내용이다.

4월 11일 청소년 아카데미 season2 '나는 개긴다, 고로 존재한다.' 를 마무리하며 마무리 토론주제는 '핸드폰' 이었습니다. 토론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1. 휴대폰,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 vs 휴대폰 제한 필요 없다.'

두 번째 주제는 '2. 휴대폰은 소통을 가로 막는가?' 였습니다.

토론내용 일부
사회자 : 휴대폰을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는지? 아랑 : 휴대폰의 합리적 제한이라는 말이 안맞아요.. 지네 마음대로 핸드폰을 제한 하면서 합리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 차라리 핸드폰 학교 에서 제한해도 되는가? 핸드폰 학교에서제한하면 안되는가? 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회자 : 000 공부방에는 휴대폰 제한이 있나요?

토론내용 일부

팬돌이 : 없구요. 이어폰 제한이 있어요.

사회자 : 학교에서 핸드폰을 제한하나요? 00중은 어떤가요?

팬돌이 : 간부수련회에서 선도부가 강력하게 휴대폰을 제한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 한 달이냐, 일주일이냐, 그 시간만이냐, 뭐 그런 것은 사람들에 따라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회자 : 뺏겨본 사람 있어요?

미누 : 한번은 매너모드안하고 벨소리 울려서 뺏겼고, 한번은 문자 보내다 뺏겼는데 핸드폰에 일제고사반대 스티커가 있어서 더 혼났어요. 한번은 일주일, 한번은 그 시간 끝나고 바로~ 도덕시간에 뺏겼는데, 한대 때리고 돌려줬고, 일주일 있다 주시는데 음료수 사들고 갔더니 금방 받았어요. 뺏어가서 6개월 있다 돌려주기도 하고, 1년 동안 돌려주지 않기도 해요. 너무 오래 뺏기면 찾으러 갈 때 좋은 걸로 찾아가거나 돈 있는 애들은 또 사요.

샤샤 : 어떤 선생님은 들어오기 전에 쭉 걷어서 창문에 늘어놔야했어요.

사회자: 아직 소지품 검사하는 학교 있어요?
영희 : 아예 핸드폰 소지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도 있어요. 핸드폰 제한이 없는 학교는 없어요. 어느 대안학교에서 아침에 핸드폰을 수거했다가 다시 돌려주기도 해요.. 1학년 5반 선생님은 한반전체를 수거해요. 그 선생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전자 기기에 아이들을 중독 시키는 것이다. 습관이 될까봐 그러는 것이다.' 라고 아이들과 합의해서 했다고 했어요.

따옹 : 여행을 갈 때도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니까 우리가 보호해주자' 하면서 핸드폰을 제한했어요. 00고 고3 중간고사 기간에 선생님이 반 아이들의 핸드폰을 1주일동안 모두 걷는 일도 있었어요.

사회자 : 이러한 제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아랑 : 핸드폰을 만지니까 가져가는데 그러면 연필, 지우개, 교과서도 가져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마왕: 교사는 배우가 공연하듯이 수업을 준비하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무시당하는 느낌

토론내용 일부

이 너무 심해요. 무시당하는 기분만큼의 기간 동안 돌려주지 않는거예요. 학교를 왔으면 수업시간에는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따옹 : 인권 교육 할 때 누가 핸드폰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뺏을 정도는 아니예요.

마왕 : 핸드폰이 없는 시대의 교사들은 핸드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집중의 문화가 필요해요. 학생들은 내가 핸드폰하면서도 수업 듣는데 왜 문제 삼냐하는데 학생들은 개인이 아니라 수업 분위기를 만드는 환경이기도 해요.

사회자 : 미리 핸드폰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뺏을 지 약속한 적이 있는가요?

아랑 : 근데 수업 시간에 전화 받는 사람이나 매너로 안해 놓고 벨소리 울리는 교사도 있어요. 강사든 청자든 수업의 맥을 끊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수업' 이라는 소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나도 중요한 거만 문자를 하는데 핸드폰 뺏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이상해요. 지금 학교에서의 핸드폰 규제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예요.**
그 선생님이 좋고 수업이 재밌으면 절대 핸드폰 꺼내지 않는다. 그 시간에 뺏기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선생님들도 안타까운 표정이지 짜증은 안내요. 결국 그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의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뺏는 것은 아니예요.

따옹 : **교육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되려면 서로 동등 해야되는데 누구는 압수할 수 있고, 누구는 뺏길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마왕 : 청소년들도 자기가 한 얘기들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가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가의 부분이 있어요.

미미 : 수업이 일방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수업 틀 자체가 일방적이예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동의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수업에 대해 재미없다고 하면 혼나요. 이렇게 불평등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합리화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희 : 맞아요. 좋은 수업을 만들자고 하는건데 선생님들은 화를 내요 **청소년들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서 충분히 항의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답답한 거예요. 핸드폰이 없는 세대의 문화와 핸드폰이 산소 같은 세대의 문화 충돌인데 어른들의 문**

토론내용 일부

화만 강요하고 있어요. 신뢰를 보여 달라고 하는데 신뢰의 방식 자체도 어른들의 문화에 맞춰져 있어요.

마왕 : 핸드폰이 교사들에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핸드폰이 바깥과 연결되어있다' 는 것이 교사들에게 위협감을 줘요. 교실 안이 동영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불안한부분이 있죠. 또 다른 면에서 휴대폰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핸드폰 압수가 왜 인권침해인가? 핸드폰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철수 : **국민들의 90%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문화의 일부가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핸드폰 압수라는 방식 자체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기는 해요. 이것 때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철수 : **핸드폰을 뺏으면 더 집착하게 만들어요.**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구슬치기를 했는데 구슬치기 중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루 2~3시간 하는 게 중독일까?

사회자 : 어느 선까지 규제할 수 있을까요? 규제 자체가 광범위한 느낌이예요. 규제라 함은 핸드폰과 관련해서 규칙을 정한다는 것일텐데요.

마왕 : 핸드폰을 쓰고 싶은 욕망이 우리 자신의 욕망인지 핸드폰 광고가 만들어낸 삶은 아닌지 ~ 얘기하다가 핸드폰을 하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구요.

은혜 :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설득할 문제지 뺏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들의 문화니까

사회자 : 대학 갔는데 교수가 핸드폰을 걷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팬돌이 : 연극 할 때도 미안해하면 되는데 왜 뺏는지?

아랑 : 핸드폰을 하면 맥이 끊긴다고 하는데 혼내지 않으면 끊기지 않아요.

사회자 : 모든 청소년 인권 논의의 출발점은 '청소년이 미성숙하다' 와 '청소년은 공부해야한다' 이다. 대안학교 교장 양희창이 '핸드폰' 이 소통을 가로막기 때문에 규제한다고

토론내용 일부

해요. 산마루 고등학교도 규제한다고 들었어요. 성미산 학교도 핸드폰을 걷어요.
핸드폰을 하면서 문자를 하면 서로 소통하는 느낌이 안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게 오가기도 해요. 이렇게 **오히려 소통을 막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미 : 그런 애들 드물어요. **핸드폰도 소통을 가로막지만 다른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더 많아요. 오히려 공부가 소통을 방해하기도 하죠. 맨날 학원가서 놀지도 못하잖아요. 외로워진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뺏으면 또 다른 기기에 중독될 거예요.**

철수 : 핸드폰을 하면 옆 사람과는 소통이 막히지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새로운 소통방식으로서의 장점이 많아요.

은혜 : 앞에 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아이랑 하는 것은 나빠요.
아랑 : 같이 얘기하는데도 문자를 하는 것은 문자의 대상이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대화에 소통이 잘 안되고, 일방적으로 계속 쏟아내고 그럴 때 핸드폰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미 소통이 안되는 상황이예요.

사회자 : 요즘 긴 문자를 보내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청소년의 문자에는 사연이 있어요. 자판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는 증거들이 핸드폰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꺼져'라는 말조차도 소통하려는 노력이죠. 불통의 느낌은 도처에서 발견돼요. 사실 '아빠 힘 내세요'는 아빠들이 싫어하는 노래래요. 아빠들이 골빠지게 일하는게 누구 때문인데, 아빠의 마음은 '니들 땜에 힘들어'가 아닐까요?

윤영 : **소통을 가장 많이 가로막는 것은 권력이예요.** 높은 사람들하고는 정말 말이 안통한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더 안통해요.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너무 젖어 있어요. 일제고사 반대 뺏지를 달고 있었더니 '너는 왜 시험에 반대하느냐', '너는 모든 시험을 안볼꺼냐' 막 질문하는데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했어요.(하략)

Ⅱ 본론

1. 휴대폰의 역기능을 보며 고민해야할 것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건 철칙이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다 혼이 나거나 빼앗긴 경험을 가진 학생들도 '왜 쉬는 시간에도 못 쓰게 하느냐!' 고는 항변해도 '왜 수업시간에 못 쓰게 하느냐!' 고 항변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수업시간과 휴대전화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아무리 휴대전화가 중요하더라도 공부의 방해꾼이 된다면 추방당해야 마땅하다. 몇 해 전 일부 지역에서 학교 안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지방자치법)를 만들고자 했을 때, 반대 여론이 크게 인 적 있다. 이때 조례 추진을 중단시킨 가장 큰 근거가 바로 '휴대전화는 학습도구' 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에 신경을 쓰다 보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동료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게 된다고 여긴다. 그런데 **수업과 휴대전화 중 휴대전화에 신경이 간다는 것은 수업이 휴대전화가 열어주는 세계보다 재미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데 재미없는 영화다 싶으면 중간에 영화관을 나올 수 있지만, 수업은 그럴 수 없다. 그 시간을 견디려면 뭔가 다른 흥밋거리를 찾아야 한다. 교사들도 교장 말씀이 길게 이어지는 직원회의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지 않는가?** 또 매너모드나 무음모드로 설정해둔다면 동료 학생에게 방해가 될 리도 없을 텐데, 혹시라도 전화벨이 울리면 '에티켓 좀 지키자!' 며 눈총 한번 보내주는 걸로도 족할 텐데, 왜 학교는 그 조금의 '딴 짓할 순간' 도 허락하지 않는 걸까? 책상 밑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린 학생을 야단치느라 오히려 수업의 맥이 끊기고 분위기도 흐려지는 것은 아닐까?

학생의 '딴 짓' 또한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아야 한다. 개인에 따라 지구력도 다르고 그날그날 컨디션도 다르고 관심 있는 과목도 다르기 마련인데 모두가 주어진 수업시간 내내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의 행동은 '나는 다른 데 관심 있다' 는 신호일 수도 있다. 수업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라면 학생의 이 신호가 여유롭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핀란드와 같은 나라에선 집중하기 힘든 학생은 잠시 수업에 빠졌다가 나중에 보충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숨통을 틔워준다고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인간의 조건'

위에서 수업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딴 짓' 을 할 수 있어야 학습권은 비로소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학교는 어떤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는 자신 있는 부탁이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정중한 요청이 아니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명령만이 지배한다. 그만큼 학생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닐까? 같은 수업 장소인 대학 강의실이나 교사들의 연수 장소에서도 조용히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이 용인되는데, 유독 학교 수업시간에만 금지되는 것은 학생을 자기 통제력도 없는 미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은 아닐까? 근본적으로 학생을 신뢰하지 않는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자율 규제의 힘을 빼앗는 '강제의 시간' 들이야말로 학생들을 자기 통제력이 없는 상태로 내모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가 속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스스로 통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겐 우리를 규제해 줄 다른 누군가가,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 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인권, 교문을 넘다 (한겨레에듀)

휴대전화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역기능을 다루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휴대전화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문제 삼는다. 문제는 왜 학생들이 휴대전화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가이다. 그리고 이 물음은 학생들뿐 아니라 지하철을 탔을 때, 명절에 시골에 가서 오랜만에 친척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눠야할 때 사람들이 왜 휴대폰을 찾는가에 대해 함께 제기되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 휴대전화에 대해 문제 삼을 때 학생들은 약간 중독 증상의 환자처럼 묘사된다. 특히 카톡으로 왕따 시키는 문제를 다룰 때는 앞뒤 맥락 없이 카톡안에서 내뱉는 언어들에만 초점을 맞춘다. 카톡의 언어는 문자와 대화의 중간정도의 언어이다. 글자이지만, 실시간 소통이기에 주어와 동사가 따로 없고, 표정이 없는 구어만이 떠돈다. 그래서 표정대신 이모티콘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대화의 맥락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언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것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특정한 표현만을 문제 삼으며 근본적으로 왜 그런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정당한 걸까?

2. 겉모습만 보고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은 왜 'smart'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전에는 전화 따로, 수첩 따로, 통장 따로, 지도 따로, 워크맨 따로, 컴퓨터 따로 모든 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었다. 스마트폰은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물건으로 해결한다. 학원과 학교에 매여 있는 10대들에게 스마트폰은 유일한 휴식의 공간이다. 친구들과 축구를 할 시간이 없는 10대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며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는 대신 카톡으로 실시간 수다를 떤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결국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스마트폰을 늘 쥐고 있는 모습이다. 겉으로 뭔가를 정당하게 표현할 기회가 차단되어있는 10대들은 표정을 감출 수 있고,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스마트 폰으로 소통을 할 수 밖에 없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로 모아놓고 스마트폰이라고 칭송하면서 하나의 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Ⅲ 결론

"핸드폰에 대한 대책으로는 핸드폰의 역기능을 막을 수 있을까?"

앞에 말했듯이 스마트폰이 학생들 사이에 역기능을 일으키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 게임이나 컴퓨터 외에는 학생들이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기회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학생들을 스마트폰에 빠뜨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따라서 경쟁 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비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도 곰곰이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즉 문제를 '학생들이 왜 스마트 폰에 중독되는가?'가 아니라 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찾을 수밖에 없는가? 로 바꾸어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을 스마트폰으로 도피하게 하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즉 스마트폰이 역기능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치를 취해야할 것은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폰에 빠져있는 학생들을 보

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 되어야한다.

- 수업 시간에 학생참여를 늘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 스마트폰이 있든 없든 학생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스마트폰으로 압축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일까?
- 스마트폰으로만 관계를 맺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 얘기할 때 스마트폰만 한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듯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하는 이유를 함께 찾아 없애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책인 것이다.

누군가 중독을 이야기 할 때, 사실 중독은 스스로 자기 욕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욕망에 끌려 다닐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규제라는 방식은 영원히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욕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으로부터 쟁취해야하는 그 어떤 것이 되어 오히려 계속 중독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욕망은 스스로에게 권한이 있을 때 비로써 통제하는 연습을 통해 결국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청소년에게 권한을 주고, 스마트폰의 의미나 사용용도에 대해서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스마트폰 자체는 어떤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지향한 뭔가가 아니다.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는 전적으로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 용도와 쓰는 방법에 따라 토론하고, 일종의 공공연한 방송공간이자 사회인 카톡방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라고 할 때 스스로 학생들은 이것에 대해 질문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질문이 시작될 때 그 해결책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첨부〉 학생들과 토론하기 위해 만든 학습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원래 휴대폰 규제가 심하기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가지고 등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걸리면 다음 학기까지 압수였으니까요. 혹시 신문에 났던 휴대폰 단속하려고 금속탐지기를 쓰는 학교가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저희 학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학교에 학칙을 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심한 휴대폰 규제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만도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번에 휴대폰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도 학생 입장에서 휴대폰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학급회장이어서 대의원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학생회장이 만들어온 초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점심시간과 방과 후를 제외하면 선생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고, 2회 이상 사용이 적발된 학생은 압수해서 교무실에 보관, 이틀 후에 찾아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한 술 더 떠서 "휴대폰은 모두 가져오면 안 되고, 담임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학생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사용하다가 적발된 학생은 1개월간 압수."라는 안을 내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다보니까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수업 중에 사용하다가 적발된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괜찮은 건지…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학생회에서 가져온 지금의 규정이라도 되게 해야 할지… 휴대전화에 대한 글 읽으면서 저도 끄덕끄덕한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당장 다음 주에 있을 공청회에서 규정에 대해 딱 어떻게 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Q. 휴대전화를 수업시간에 사용한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을까? 그런 규칙은 정당한가? 또는 그런 규칙을 정했을 때 이를 어긴 학생들을 어떻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적당할까?

Q. 여러분이 직접 휴대전화와 관련된 학교 규정을 만들어본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서 만들고 싶은가?

Q. 카톡 대화 내용 등으로 학생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올바른 소통을 위해 카톡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토론 2

상담장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문제

배 주 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

토론 2

상담장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문제

배주미(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 들어가기

요즘 나타나는 스마트폰의 발전과 이용상황은 이십여년전 까지만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 적어도 핸드폰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기는 즉시성, 직접성, 휴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특히 기기가 한 대의 컴퓨터 기능과 맞먹을 정도로 '스마트' 하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사용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등장과 빠른 발전 속도는 스마트폰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대비를 할 여지를 주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며, 현재 이러한 스마트폰 역기능은 점점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스마트폰 역기능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스마트폰 역기능 이상의 청소년발달과정에 문제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더욱 심각한 편이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역기능의 문제를 특히 상담에 의뢰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상담장면에서 접하게 되는 스마트폰 역기능 문제

흔히 2G폰이라고 불리는 휴대폰 사용시기에도 '휴대폰 중독' 이라는 현상이 있었

으며, 몇몇 연구에서(이인희, 2001)는 이러한 휴대폰 사용 동기를 편의적 동기, 대인관계 동기, 오락적 동기, 과시동조적 동기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그 동기가 유사할 것으로 본다.

상담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청소년들과 그 부모님들의 호소 또한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동기와 무관하지 않은데,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들은 다음의 몇 가지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는 청소년

가장 흔한 사례는 컴퓨터를 사용한 인터넷중독과 유사한 스마트폰을 통한 지속적인 게임 및 오락을 하는 경우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흔히 부모가 인터넷 또한 과사용 혹은 중독되었던 청소년들이 많은데, 컴퓨터 사용의 제한을 받게 되고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되면서 게임이나 영화시청 등의 오락을 주로 스마트폰으로 하게 된 경우이다. 컴퓨터에 비해 화면감, 사운드, 클릭감 등은 없으나 24시간 휴대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컴퓨터는 누구나 그 사용여부를 알수 있으나 스마트폰은 개인용도이며 전화라는 기능이 있어 부모가 통제나 차단을 더 하기가 힘들고,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하거나 혹은 게임관련 블로그 활동 등을 할 수 있어 그 중독성은 더 높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가벼운 게임은 남녀노소 불문 전국민이 함께 하는 오락이라는 가벼운 이미지가 있어 청소년들이 더욱 합리화하기가 쉽고 부모들이 더욱 훈육과 단속이 어렵다.

② 끊임없이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집착하거나 따돌리는 청소년

두 번째 유형은 특히 여자 청소년들에게 더욱 흔한 유형으로 끊임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하고, 블로그 답을 다는 등의 대인관계 동기가 큰 유형들이다. 이 유형의 문제는 시간의 경계없이 학원수업 중, 잠을 자야하는 늦은 밤에도 계속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고, 혹은 서로 메시지를 하지 않을 때에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이의 사용을 중단했을 때에는 불안을 경험하며 실제 휴대폰이 울리지 않을 때에도 울린 것 같은 착각을 하고 계속 확인을 하는 강박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그들의 대인관계 욕구로 인해 이와 같은 스마트폰 의존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며, 특히 이들이 '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따돌려질

지 모른다.’, ‘친구들이 서로 소통할 때 내가 빠지면 나중에 끼지 못할 것이다’ 등과 같은 대인관계 불안성향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통해 시간적 경계 없이 확장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몰두하지 못하고 카톡이나 메시지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청하거나 자신의 노출사진을 유포하는 청소년

세 번째 유형은 청소년들의 과도한 음란물 노출 및 집착의 문제이다. 청소년기에는 흔히 음란물에 접해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는 시기이기는 하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이전의 비디오나 컴퓨터보다도 더욱 손쉽고, 더욱 개인적인 상황에서 음란물 시청이 가능해 이에 대한 노출과 집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최근 상담에 의뢰되는 또 다른 청소년 유형은 ‘노출 사진’ 이나 ‘동영상’ 을 찍고 그것을 스스로 친구들에게 공유하거나 혹은 노출되어 결과적으로 ‘왕따’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관심끌기’ 에 의해 나타난 문제이지만, 스마트폰이라는 혼자서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여 공유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기기가 나타남으로서 ‘노출셀카 공유’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④ 계속하여 새로운 기기로 바꾸는데 집착하는 청소년

마지막으로 과시동조적 욕구로 인해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새로 나온 기기에 집착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폰을 가진 청소년들이 무리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애를 쓰거나 부모에게 조르는 것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새로운 모델의 출현과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와 집착, 그로인해 파생되어 나타나는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위와같은 스마트폰의 역기능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은 아닐 수 있다. 오락동기, 대인관계 욕구, 과시동조적 욕구나 성적호기심 등을 가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이라는 개인용 전화기이자 강력한 컴퓨터에 맞먹는 기기를 갖게 되면서 심각해진 결합효과에 의한 상황이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또한 이 기기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유한 개인 핸드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하고 규제하여 조절하게 해야

할 지의 혼란이 커 더욱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즉,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스마트폰의 기능과 활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예측 없이, 또한 이러한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선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나 훈련 없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문제덩어리' 로 변모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

3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스마트폰 역기능의 문제를 청소년들의 욕구, 청소년기의 특성과 함께 스마트기기의 발전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또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① 청소년기의 기본 욕구를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발달환경의 조성

먼저, 청소년기들의 오락욕구, 대인관계 욕구, 정보탐색 욕구, 성적 호기심 및 과시동조적 욕구 등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욕구라고 볼 때 이러한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스마트폰 문제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스트레스와 지나치게 긴 학업시간으로 인해 적절히 오락욕구와 대인관계 욕구 등을 해소할 방안과 시간이 부족하며, 단시간에 언제어디서나 이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더 몰두하고 집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욕구표출 방식이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더 몰입하게 되고, 따라서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고 집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늘리고, 사회화를 배울 수 있는 친구들과의 팀접근을 하는 다양한 집단활동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② 지속적인 부모의 관심과 대화, 지도

특히 가족 내에서는 부모들이 자녀가 특정한 욕구가 결핍되어 더 집착하게 되거나,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해하고, 끊임없는 부모의 관심, 대화와 지도감독을 통해 그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 충족되어야 할 것을 파악하고 충족시켜주려는 노력과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자녀를 끊임없이 지도하여 조절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매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기 보다는 적절히 선용하는 모범을 보여 자녀들이 이러한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③ 영유아기부터의 지속적인 바른 매체사용에 대한 교육

학교 및 사회에서는 다양한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어린 유아기부터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이 기기의 바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구별하게 하고, 바른 사용과 조절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도 이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 소비자들에게는 단순한 판매를 위주로 하는 행위보다는 바른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청소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특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기가 개발되어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상황일지라도 이러한 기기가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영향을 끼치는지를 선제적으로 고민한 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용시간제한 제도를 도용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감찰할 수 있게 하거나, 청소년용 기기에는 특히 음란물과 유해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장착되게 하는등 이들의 특성과 부모의 요구와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훨씬 스마트한 스마트폰’ 의 개발이 요구된다.

4 나가며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서 엄청난 개발비와 홍보비를 투자하여 이를 많은 청소년들이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 기업은 이 스마트폰을 어쩔 수 없이 청소년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 사용하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더 안전하고 그들의 발달적, 상황적 특성이 모두 고려한 청소년에게 적합한 '더욱 스마트한 스마트폰' 을 개발하고 청소년과 부모를 더 잘 교육하여 '더욱 스마트한 스마트폰 사용자' 를 양성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토론 3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스마트폰 이야기

이 상 훈

(안법고등학교 1학년)

토론 3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스마트폰 이야기

이상훈(안법고등학교 1학년)

요즈음 학생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장점

스마트폰은 언제어디서나 정보 검색이 가능하여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점과 통신을 이용한 강의나 사전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볼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업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하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준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피해

반면, 스마트폰의 특성에 의한 피해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 문제

먼저, 가장 심각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게시판 같은 것에 글을 남기면 (이것에 대해) 욕을 써 놓는다든지,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계속 욕을 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문자테러를 한다든지, 또 반 같은 그룹에서 왕따인 아이를 제외시키고 채팅방이나 모임을 만들어 그 아이에게 소외감을 느끼게도 하는 모습을 제 주변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폭력 문제는 아니지만 당사자에게는 정말 끔찍한 경험이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핫스팟 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위해 힘 약한 아이의 인터넷 요금을 협박해 사용하거나 하는 문제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 집중 문제

제 주변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 중 가장 많이 동감하는 문제는 바로 다른 일에 집중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켜서 만지작거리게 되고 공부를 하다가도 선생님들 눈을 피해 몰래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는 일이 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이유

이렇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 서비스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자기가 심심할 때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또 재미있게 시간을 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공간적 제약이 없어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남긴 글에 대한 댓글을 확인 할 수 있고,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란 것이 가능해 짐으로 지루함과 심심함을 싫어하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의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저 또한 한때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게임을 확인하게 되고, 다른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게임에만 열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은 액정을 이용한 기계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눈에 피로가 쌓

이고 안구가 건조해 지면서 시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스마트폰을 사고 나서 밤에 불을 꺼놓고 사용하다 보니 좀 심각한 시력의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와 차이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문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와 사용하지 않는 아이와의 차이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이 되어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 모임에 관련된 내용이나 중요한 학교 알림 등을 스마트폰의 서비스를 통하여 반 아이들에게 알리기도 하는데, 청소년들 중에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이 없거나 심지어는 핸드폰 조차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반 아이들끼리 모임이라든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경제적인 문제 및 부모님과의 갈등 문제

청소년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핸드폰에 비하여 약 2배에 가까운 요금을 내야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스마트폰을 산 이유가 남들도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나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다는 애들이 상당 수 있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도 비싼 것과 싼 것의 차이가 있어서 '나는 이런 폰밖에 못쓰는데.. 제는 저런 폰을 쓰네..' 하고 열등감이 생길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안사자니.. 나 혼자만 뒤떨어지는거 같고.. 어차피 요금도 얼마 차이 안나는데 그냥 사달라고 해볼까..?' 하는 생각에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가면서 사달라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부모님들의 생각과 청소년들의 생각이 잘 맞지 않아 부모님과 청소년들이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저의 친구는 부모님께서 핸드폰을 부신적도 있다고 합니다.

□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

학교에서의 생활에 있어서도 스마트폰 사용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스마트폰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이 생활하는 것은 꾀나 힘든 일입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압수를 하거나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학생들의 불만으로 인해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 주변 일을 보자면, 저희 학교는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학생들은 자기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해서 걸리게 되면 선생님들에게 뺏기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걸리게 되면 선생님께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뺏게 됩니다. 뺏긴 아이들의 심정을 들어보니 내 핸드폰을 빼어간 선생님이 원망스럽고 그 선생님이 미워졌다고 합니다. 사제지간의 정이 많아야 하는데 이 핸드폰 사용으로 인하여 그 정이 없어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학교에서 핸드폰을 뺏기는 횟수가 정말 많이 증가했다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 되고나서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간접적으로나마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입장은 아직 학생들이 스스로 자제력이 부족하고 에티켓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제를 해서 아이들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말이 핸드폰을 뺏겼다는 분노 때문에 잘 들리지 않고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과 미움만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께서 자기 자식이 스마트폰을 선생님께 뺏기자 교무실에 찾아와서 내 아들 사유재산인데 학교가 왜 이걸 마음대로 빼어 가냐면서 (선생님들 표현으로) 깽판을 하루 종일 치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일 때문에 선생님들은 정말 지치고 그 학생과의 마음의 벽을 쌓게 되고 피곤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경험과 제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스마트폰을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못 쓰게

되었을 때 처음 2~5일 정도는 매우 불안하고 그거 없이는 살지 못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증세가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 학교에서 : 자율적 의사에 따라 제출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이 허전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집중을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처방법으로 어른이나 선생님들에게 자기 핸드폰을 일정시간 자율적으로 맡겨보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이때 타율에 의해 핸드폰을 강제적으로 맡아준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애들 말을 들어보자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내고 싶어 낼 때는 선생님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고 선생님도 미워지지 않지만 타율에 의해 뺐길 경우에는 정말 원망스럽고 서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 스마트폰을 대체할만한 재미를 마련해 주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이유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심심하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감에 빠져 사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정말 재미없는 공간입니다. 맨날 공부만 시키고 재미있는 것을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 간편하고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핸드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재미있는 무언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하루한번정도 마음껏 놀 기회를 준다던가, 재미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해 준다던가 하는 일입니다.

○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급

학생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와 사용하지 않는 아이의 차이에 대한 문제는 스마트폰을 피치 못한 이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이버폭력 : 인격 교육, SNS회사의 도움, 신고체계 강화, 청소년용 스마트폰

그리고 사이버 폭력 문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이버든 사이버가 아니든 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모두가 똑같은 인격이며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심술로 인하여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하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게 하는 방법은 그 때 잠깐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일단 사이버폭력이 있다면 피해자를 구해줄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 방법으로는 SNS서비스 회사에게 말을 하여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를 차단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주위 선생님들과 어른들은 그 피해학생이 더 피해 입은 건 없는지 항상 주시하여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를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정보가 다 인터넷으로 저장되게 때문에 추적하는 것이 쉽다곤 하지만 보통의 선생님들은 사이버 폭력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신고 절차나 과정 등을 간편히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잘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학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도구는 없을 것이고, 그걸 나쁜 쪽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더 심한 나쁜 도구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스마트폰을 학생들 전용 스마트폰을 따로 만들어서 스마트폰 게임이용 시간의 제한을 둔다던지 교육용 기능을 더 강화 한다든지, 기능을 부여하면 훨씬 더 좋은 스마트폰 문화가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메 모

메 모

메 모